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발행인 황병태
부 집 인 권 심규세
편 집 장 임재형
외대신문사 (직통전화 962—7128)
외대학보 (직통전화 965—7048)
131—0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170—4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쇄인 한국경제신문사 이 규 행

제464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7년 4월 21일 (화요일)

흩뿌려진 민주넋 되살아나는 들불이여

◇판화 : 문샘 〈화가〉

수유리에 심어둔 꽃씨

김 창 완 〈시인〉

해마다 사월 이맘때면 꽃씨를 묻는다
굳은 땅 뒤집으며 혁명을 생각하고
흙속에 꽃씨를 묻어 놓고 생각한다
온갖 꽃 어우러져 핀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올해도 사월이 와서 꽃씨를 묻는다
백일홍 피라고, 채송화 피라고,
봉숭아 피라고, 맨드라미 피라고,
피라고, 피라고, 피라고,

젊은 피 선연하게 절정에서 핀
그 꽃을 우리는 자유라고 불렀던가?
수유리에 묻어 둔 젊은 이름들이여

꽃씨는 왜 모두 까만 것일까
죽음 같은, 암흑같은, 절망같은,
우리들의 오늘 같은, 모슈뿐일까
최루 개스 마시고 본 하늘 같은, 것일까
점퍼 입은 사람들의 눈빛 같은, 것일까

황사바람 눈 못 뜨게 어지러운 날
사월은 눈 감고 또 찾아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어서
시멘트 속에 갇힌 돌멩이가 되고
보슬비에 젖은 함성이 되어

깊은 잠에 빠진 수유리의 꽃씨를
깨우려 하는 것일까 해마다 깨워도
아아 이 부질없는 사월의 시행착오여
잔디만 깨어나 부질없는 권력처럼

바람에 눕고 바람에 춤추는데
그해 사월 수유리에 묻어 둔 꽃씨는
어째서 아직도 싹트지 못한까?

개교 33주년 및 4·19특집 12면

△1면 : 기념화보, 기념축시
△2면 : 총장, 이사장 기념사 시론 「민정당의 개헌논의의 흐름과 본질적 귀결」
△3면 : 보도기사
△4면 : 학술시리즈 「사회주의의 이해를 위하여」
△5면 : 사회복지 시리즈—좌담
△6면 : 4·19특집Ⅰ—「4·19의 문학와 문학의 4·19파」
△7면 : 4·19특집Ⅱ—「4월혁명의 한계와 조직운동의 기본원칙」
△8—9면 : 4·19특집Ⅲ— 「민중사학」
△10면 : 개교특집—「현실화 돼야할 마스터 플랜」, 원로 교수와의 인터뷰
△11면 : 4·19기념제 총평기사
△12면 : 꽁트 「까뮈 유감」

1987 신작서정시선집

마침내 비등점의 물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한 여성화제!

고은기 · 高銀 · 高炳熙 · 金光主 · 김광훈 · 김승희 · 金昌完 · 金福鎭 · 宋秀根 · 李秀貞 · 李貞淑 · 李炯石 · 李炯基 · 張鎭周 · 정경임 · 鄭浩承 · 최광 · 간디우 (2000원)

11판 돌입!
불과 7페이지를 읽은 후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지르고 살은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나」

23세에 결혼, 20세에 이혼하기까지의 결혼생활의 위선을 폭로하고 자신의 반성을 통한 결혼생활의 이상을 찾아가는 과정 · 자유의 의지를 꿈꾸는 미망 · 좌절과 고독 · 하루의 결혼생활을 인내하고 미화하여 ·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에 대한 분별과 무관하게 돼어지어진 우리 삶의 거짓된 부분에 대한 경고이자 정직한 삶의 추구!

• I권 결혼녀 / 2500원
• II권 유디트 한페르그 / 조선희 / 3000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전화/782-7663, 7678

장석주 추억집
내 스무살 푸른 영혼

모든 것을 부정하고, 동시에 긍정하며, 모든 것을 증오하고 동시에 사랑하며, 방황하던 우리들의 젊은 날, 손목의 동맥이라도 자르고 싶은 세월의 실패 한 절망, 절은 몸뚱이를 전기처럼 흐르던 광폭한 고아의 식, 는 당돌이 깨어나는 미친 무모함을 유쾌한 고독 타락에 빠져 지진 속 분출 충동을 달아주고 따뜻한 위로와 상처의 일정을 한 마리 잉어의 지느러미 스무살 청춘 속에 개개 푸른 날개를 펼쳐 주고 날개 없는 비상의 꿈을 불러 일으킬 맑고 우렁찬 말의 울림. 지성의 벽체에 오염되지 않은 인간의 의동하는 의지와 조화를 찾아나선 시냇물, 흙의 가슴 속에 심겨진 스피를 내며, 비치는 태양에서 그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비상과 추락의 섭리. • 다이얼로그 판/3000원

● 장석주 평론집 450면/3600원
한 완전주의자의 책읽기

□ 니체전집 3·6.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 비극의 탄생 外 [2] 반시대적 고찰 [4] 서광 [7] 선악을 넘어서 [8] 도덕의 계보 外 [9] 우상의 황혼 外 [10] 즐거운 지식과 [11] 권력에의 의지 I·II권 이상 각권 2800~3800원

한국인의 예송시

[1] 1500원 [2] 1500원 [3] 6000원

잉게보르그 바하만/차경아 譯·2800원
□해설/가능한 것으로 부딪치는 유희

세계 문제 시인선

소금과 빵

파울 첼란/김영옥 譯·2000원
□해설/시대를 짊어진 존재로서의 詩語

죽음의 푸가

두이노의 悲歌

라이너 마리아 릴케/한기찬 譯·2000원
□해설/존재에 대한 허망과 상승의 몸짓

자살의 연구

실비아 플라스의 자살을 분석하면서 자살의 역사와 배경,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의 이해를 돕도록 구성된, 자살에 대한 철저한 분석서. • A·알바레즈/최옥희 譯/3200원

[1] 성의 길 원근구름의 길 [2] 신비주의자의 노래 [3] 죽음의 예술 [4] 5·김삿갓 [5] 김삿갓 [6] 광대 I·II권 [7] 영원의 우유소리 [1] 3500원 [2] 3500원 [3] 3500원 [4] 3500원 [5] 3500원 [6] 3500원 [7] 3500원 계속 나옴.

詩作을 위한 가장 모범적인 텍스트 • 오든 M·리치우

시창작입문

이 입문서를 통해 당신은 시인이 되고자 하는 열정을 다스리는 구체적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한편의 시를 쓰기 위한 언어의 포로가 되는 일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부록으로 I 읽어야 할 국내 시인 주요 동인지 및 무크지 II 1981~1983년 신춘문예 당선시 모음 III 절은 시인들의 시집 100권. IV 각 문예지의 신인 등용 발췌이 소개되고 있다. 3800원

詩作法 3000원

小說作法 I 3400원 II 3000원

'청하'가 펴낸 책들

사설

4월혁명이 남긴 과제

—독재의 논리는 역사발전의 순간적 장애물 일뿐 역사를 거꾸로 돌리진 못한다

또다시 4·19를 맞는다。해마다 진달래가 온강산을 붉게 뒤덮는 4월이 오면 우리의 가슴엔 한맺힌 민족의 아픔과 함께 오욕의 역사를 되씹어 보게된다。

수많은 민주영령들이 이땅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육신을 사르며 산화해 갔음에도 이땅의 모순은, 그리고 우리의 외침은 아직도 계속되고있다。일제의 굴레를 처절한 40여년의 민족항쟁을 통해 벗어버리고 맞은 해방, 이땅에도 새날이 온다는 기대감은 또다른 외세에 의해 분단의 아픔으로 바뀌었고 일제의 잔재를 등에업고 등장한 이승만 정권을 12년의 독재를 통해 모순덩어리 한반도를 잉태시키고 말았다。

60년 4월, 학생봉기에서 출발하여 전민중적 열기로 확산된 4월혁명은 부패와타락으로 일관해온 정권에 대한 부정이었으며 동시에 이땅의 민주화와 외세에대한 민족자주화에의 열망이었다。결국민중들의 이같은 외지가 5·16군사구데타로 끝내 형상화되지 못하고 왜곡, 좌절되고 말았으나 이는 역사주체로서의 민중의 위치와 힘을 확인시킴으로서 그들이 역사속에 다시금 복귀하는 계기가 되었다。

4·19는 해결되지 못한 많은 숙제들을 남긴채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말이 단순히 실패라든지 단절의 외미로 받아들여진다면 4·19는 역사책속의 죽은 활자에불과하다。당시 쓰러져간 선배들의 정신이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해결되지 못한 아니 더욱 절곡으로 치달고 있는 이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질때 4·19는 현재적 외미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이제 27년의 세월이 흘렀다。 여전히 시내 한복판에는 갑옷으로 무장한 전경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집을 헐리운 철거민들이 명동성당에 천막을 마련한채 갈곳을 잃고 헤매고 있다。

호화로운 체육행사만이 현재 민족의 대사(大事)로 규정되고 직선제 개헌요구가 「혼란」이니 「88년 평화적정권이양」이니 하는 말로 유보된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이전 27년전 타올랐던 민주화의 뜨거운 외침이 결실을 보아야한다。민중들의 함외에 의하지않은 독재의 논리는 역사발전에 순간적인 장애물이 될뿐 역사를 멈추게하거나 거꾸로 돌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평화를고 따사롭게만 느껴지는 이봄날,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숨져간 영령앞에 삼가명복을 빌며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을 우리들의 모습을 각인해보자。

개교33주년 기념 축사

◇황병태 총장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오늘로서 개교 33주년을 맞았읍니다。진리, 평화, 창조라는 숭고한 이념을 내걸고 뿌리 연 우리외대는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면서 알찬 내실을 기해왔읍니다。

개교 당시는 5개학과 150명의 작은 규모였던 본교가 오늘은 8개대학 64개학과에 1만 3천여명의 학생들을 거느린대규모의 종합대학교로 성장했으며, 외대를 졸업한 인재들은국내외 각분야에서 국가발전에기여하는 여군으로서 눈부신 활동을 벌이고 있읍니다。

외대가 걸어온 발자취는 4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읍니다。

제1기는 1954년 종로2가 영보빌딩에서 개교하여 57년에 교사를 현재의 이문동으로 옮기기까지의 종로시기였읍니다。이시기는 우리 외대가 세계로 웅비할 태세를 갖추는 요람기였다고 정의 할수 있읍니다。제2기는 이문동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한 '성장기였읍니다。이 시기에 우리 대학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여 외대인들은 세계를 무대로 활약 할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 여러나라의 유명한 명문대학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전개하게 되었읍니다。

제3기는 1981년 본교가 종합대학교로 발전했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도약기였읍니다。외대는 세계 각나라의 지차를 가하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 대학은 지난 날의 경험과 눈부신 발전을 토대로 세계로 웅비할 수 있는 제2의 도약기를 맞았읍니다。

바로 제4기의 영광의 시기인 것입니다。2천년대에는 이문과 용인의 왕산골이 우리나라 학문 연구의 중심지가 될것이며, 세계로 뻗어나갈 인재양성의 요람지가 될 것입니다'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진리」의 탑구, 민족의 번영과평화공일을 기약하는「평화」의 수호,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할 수 있는 「창조」의 서광이 이문과 왕산벌에 비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새 시대의아침은 밝았읍니다。우리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의 창조에 진력할 것입니다。

◇이숙경 이사장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 외대의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오신 역대총·학장님, 교수·직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모교를 사랑하여주신 동문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경이 휩쓸고간 폐허(廢墟)에서 우리의 삶길은 교육을통한 인재양성이며 더욱이 세계와어불어 호흡하고 세계로 진출하기위해서는 외국어교육이 시급하다는 명예이사장이신 동원 김홍배박사님에 의해 설립된이래 불과 30여년만에 눈부신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의외대로 성장하였읍니다。

이것은 명예이사장님과 역대총·학장님을 중심으로 온 외대인이 하나가 되어 피땀어린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 생각되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서구 명문대학의 유구(悠久)한 역사에 비한다면 우리의 30여년은 매우 일천(日淺)하며 이런면에서 볼때 우리는 이제 출발점에서 있다고 할수 있겠읍니다。외대가 국가발전과 세계인류문화에 기여하고 평심공하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대열에 들기 위해서는 정상(頂上)을 향해 출발하는 등반인(登攀人)처럼 경허한 자기성찰(自己省察)과 더불어 어려움을 이겨낼 수있는 인내력과 각오를 다시 다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본질에 대해 여러가지로 이야기 할수 있겠으나 학문의 교수(敎授)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읍니다。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학문의 세계에서 뒤지지않게 쉬지않고 연구하며 학생들을 내 자녀같이 인격과 사람으로 지도하는 교수, 미래의 주역(主役)으로서 교수님을 존경하며 인내와 지성으로서 학문연마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생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행정과 봉사정신으로 내집삼힘하듯 정성을 기울이는 직원, 이렇게 외대의 구성원 모두가 본분에 충실하고 한뜸이 필때 우리 외대는 명문사학으로서, 지성의 전당으로서 정상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외대인 여러분! 오늘 개교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외대인의 긍지와 정심대도(正心大道)의 정신과 자세로 외대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겸허한 자기성찰과 새각오가 바탕이 될때 외대의발전이룩

◇최근 대통령의 중대결단조치와 관련

민정당 개헌논의의 흐름과 그 본질적 귀결

백 인 규

〈사회경영 정보·3〉

Ⅰ. 들어가는 말

지난 4월13일 전두환대통령의 「중대결단」조치는 개헌국면에 큰 획을 그은 충격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평화적 정권교체와 단임의지의 확약」 「국가중대사를 앞두고 혼란과 절서파괴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고, 개헌을 빙자한 불법집회는 전면 불용」한다는 내용으로, 89년 개헌논의를 상정한 현행헌법 고수, 실질적 호헌으로의 회귀를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조치로인해 개헌을 매개로한 민주화의 열망을 간단없이 표출해왔던 절대다수 국민들의 가슴에 씻김수 없는 못을 박아놓았음은 물론, 그간 진행되어온 개헌논의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중차대한 계기를 던져준 셈이 되었다。

집권세력이 강조하듯, 혹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듯 이번 중대결단의 배경이 신민당의 파당에 따른 합의개헌의 파산, 신당창당을 통한 대규모 혼란야기 우려라는데서 보다는 당초 개헌문제를 둘러싼 집권세력의 입장과 태도의 당연한 귀착점이 아니겠는가하는 근본적 반성이 일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머무기 개헌과 관련한 국민적 의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터에 한낱 정치권의 교착상태와 혼란조성등 전가의 보도같이이용되어온 논리로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비판여지 뛰따르고있다。

이글에서는 오늘 89년 개헌논의 유보로 귀착된 현실이 비롯되게된 바탕이 무엇이며, 이는 국민적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촛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결태호헌→89년 개헌→여·야 합의민 입기내 개헌가능←내각제 개헌으로 변화해온 집권세력의 개헌론 흐름의 배경과 형식성을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개헌논의의 배경과 그 본질

80년 과도한 물리력을 바탕으로 집권·출범한 제5공화국 정권은 「군부의 재집권」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을 수 있는 정통성의 부재」라는 당연한현실속에서, 그에 따른 향후 통치를 원활히 달성할 수있는 구상마련에 부심해왔다。그 결과 과거 「유신정권의 장기집권」을 빌미로, 대(對)국민적 정통성의 명분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7년단임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수립」이었다。 또한 당의 정부에 대한 우위성 확립을 통해 단임후에도 당에 잔류영향력 행사를 보장받는다는 목적의 「당우위 전략」을 세워두었다。

이는 민정당 이념의 정책정당화, 당정협의회 설치, 백만당원 확보로서 추동되었으며, 이를통해 「통일주도 정당」의 면모를 달성코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의 두가지 기본방향은 2·12총선을 기점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실질적 총선의 패배는 7년단임의 정통성 붕괴·민정당 우위전략의 동시적 실패를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다시말해 신민당의 「대통령 직선제」 슬로건이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얻으며 부상함에 따라 「평화적 정권교체」 명분의 치부가 공개되어 버렸으며, 당우위전략에 의한 완전한 선거승리도 의문시 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집권세력에 있어 기존구상의 일대수정과 새로운 전환이라는 당면과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그러나 신민당의 「대통령 직선제」에 따른 개헌협상작업에 맞서 86·88 체육행사외엔 별다른 명분이 없을 뿐더러 군의 기반을 통한 엄청난 물리력 행사역시 그리 용이치 않았기 때문에 방향갈각을 상실 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우기 87·88년 정권교체시기를 앞두고 안정적 권력재편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권력재편과 직결된 개헌문제는 고도의 신중을 기해야만 될 중차대한 현안이었다。

어쨌든 이같은 전제하에 집권세력은 호헌을 골간으로 각종 장·단기대책을 마련하게되는데 대충 3가지정도로 요약정리해 볼수 있다。우선 「호헌=현행헌법 정권교체」라는 도식을 통해 대 국민 홍보전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며, 정치적 대응과정에서 이슈의 다변화를통한 개헌정국의 혼란을 유도한다는 것이다。들째 실정법과 물리력을 근거로한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탄압의 구사를 통해 운동권·국민대중·야권과의 관계차단, 세째로 당체제 공고화작업의 마무리를 들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본전략과 대응방향을 고수하고 있으면서도 만약 개헌불가라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천명되었을 경우 안게 될 부담을 사전방지키 위해 86년 1월16일 국정연설서상에서 「89년개헌의사」를 비치게되는 것이다。

신민당을 장내에 묶어두고 국민적 불만감을 최소화하기위해 취해진 조치였다。이에따라 86년 초반기까지는 「개헌」의 「개」자도 입을 뗄 수 없는 숨막히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그러나 총선승리를 기반하여 정국주도권 행사체의 일환으로 착수한 신민당의 각종 개헌집회, 민주화운동세력의 여동적 움직임, 필리핀 2월시민혁명등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등 상황의 급속한 추이에따라 시급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져야만 했다。

머무기 한반도통치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하에 「현 권력과 야당의 적정선 타협」을 종용하는 강력한 헌실적 실세인 미국측의 입장에서 집권세력의 전면개헌봉쇄는 그리 달가운것이 필수 없었다。이에따라 4월30일 청와대 3자 (대통령·노태우·이민우) 회동에서 「국회에서 여·야합의면」이라는 단서와 함께 「입기내개헌」이라는 의협상 파격적 대안을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결국 이러한 「입기내 개헌」조치는 가시적으로 국민적 의사를 수용한 듯 하지만, 오히려 자기모순이 낳은 한계성과 외적변수의 결과물일 뿐이었음은 물론, 자신들 주도하에 권력배분을 극소화·형식화하고자 하는 목적아래 보수대연합을 암암리에 구상하기도 했다。

또한 구체적 대안으로서 제시된 의원내각제의 경우도 현직 대통령의 영향력행사를 보장해주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만 각계각층에서 무성하게 발았을뿐 「국민직개헌의 수용」차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을 따름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종국에와선 오늘의 89년 개헌유보조치로 결과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Ⅲ. 결론하여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민정당을 포함한 현 집권세력의 개헌논의는 가시적으로 번화만 거듭했을뿐 기본적으로 그 맥은 별반 다를 바 없는 기조로 진척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이번 대통령의 4·13중대결산조치에 따른 89년 개헌논의의 유보 실질적 호헌으로의 회귀천명은 충격적으로 간주될수도 없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는 점을 명확히 직시해야만 한다。그것은 이들의 기본입장이 외적변수, 상황의 이용을 축으로 여러가지 형태로 노정되었을뿐 그 본질에 이르려선 다를 바 없다는 당위의 사실에서 그렇다。

여기서 우리가 보다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어차피 개헌문제자체가 헌법의 개폐여부에 촛점이 두어진 것이 아닌 사회 제 역관계의 총체적 표현이요, 민주화달성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설정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결국 개헌이 현상적으로 유보된 현 시점에서 개헌자체여부에 매몰되기보다는 보다 확대된 사고가 바탕이된 올바른 평가와 그에따른 실천성이 요구되는 때임을 강조해두고 싶다。

89년 개헌유보·실질적 호헌천명은 가시적 변화로 일관한 집권층 개헌론의 본질반영 개헌의 의미 직시하는 명확한 시각 절실

의혹의 화판

4·19

▲지금은 4월, 진흙빛 봄을 맞는다。시린 햇살아래 흐드러지게 피어난 진달래꽃, 그 틈새로 거친숨 몰아쉬듯 비장함과 그리고 세찬 희망의 바람이 불어온다。

이토록 해마다 찾아오는 봄이오면 우리는 어김없는 깊은 통증을 앓기시작한다。 속살깊이 박혀 이제 뿌리칠 수 조차없는 꽉 고목은 지병이되어버렸다。

긴호흡을 들이킨다。1960년 4월19일。 한치도 못될 무덤, 봄과 이틀석자의 묘비위에는 청한 하늘이 드리웠다。고결하고 깨끗한 삶과 죽음이었다。

그리고 착하고 우직한 사람들의 가슴속깊이, 아렴한 역사의 이름위에 남았다。

▲…역사, 역사는 무엇을 진실로 말하려하고 있는가。굳세게 떨쳐일어선 이름을 갖지못한 군중들은 역사책장 그어느곳에도 있지 않다。

그래。「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은 어쩌면 역사의 진의(眞意)를 비쳐주는것이라는 생각을 떠올린다。한줌의 흙을 만지면서도 반도민(半島民)의 땅에 떨어진 혈흔을 되새김질 할수있는것, 어린애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오늘 치욕적 현실을 미래의 참기쁨으로 만들리라 약속하는것, 4월 달력장을 넘기며 압제의 사슬에 자신의 기개를 팔아넘기지는 않으리라 수만번 다짐할 수 있는 것。그리고…。 그날 4월의 역사는 오늘 4월에도 있다。

그때 그자리에서 그들은 무엇을 위해 십자가로 선채 총알받이가 되어야만 했던가。 압제는 울뚱의 고통을 낳았고 견딜수 없는 고통은 불멸의 투쟁을 잉태했기 때문일 뿐이다。 불수는 없어도 가슴깨차게 고동치는 숨결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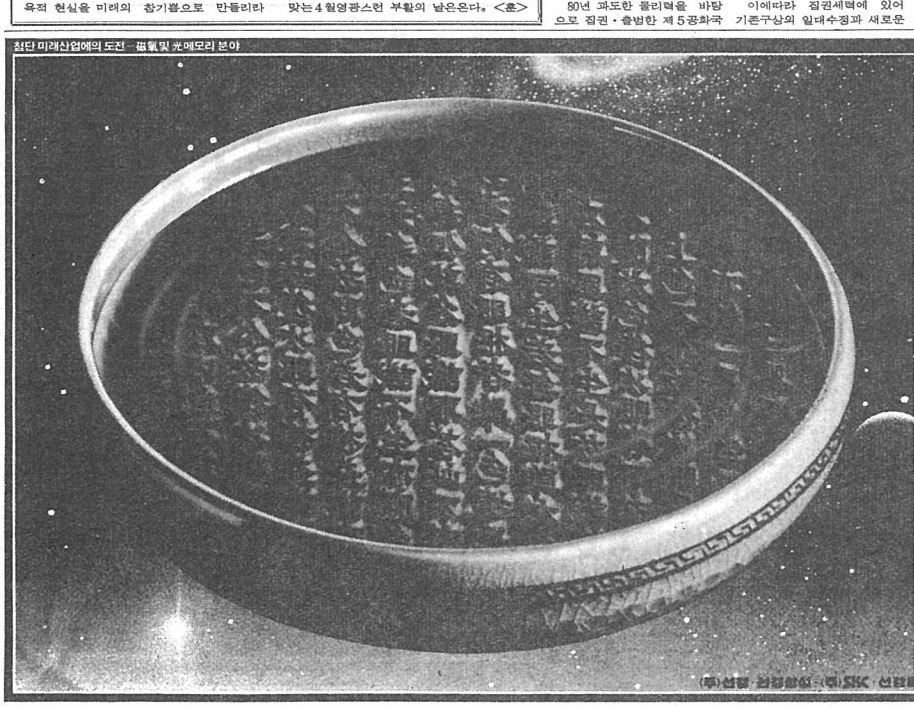
그러나…。그후 어언 27년이 지난지금 적지않은 세인들의 「일개인의 안위와 무관심」에 독재는 어엿이 살아 활개치고 무린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봄은 그 언제나 오려는가」「지금같이 통탄하거나 회의를 품지않고 뗏뚯하고 성실하게 살아갈때」

가슴저미도록 따갑게 느껴지는 얘기다。

그때。그어떤 시련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으며, 아는것을 행동함을위해 생명을 부여할 때, 그리고 누군가 말했듯 우리의 피땀으로 우리들의 역사와 미래가 이미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굳게 믿을때에 무던히도 기다렸던희망은 실현되리라。우리의 고통으로, 폭력으로 후일 고통과 폭력없는 새세상을 기약할 많은 사자들이 이땅위에 우뚝솟적에 다시금 맞는 4월영광스런 부활의 날은온다。<홍>

첨단 미래산업에의 도전 — 磁氣및 光메모리 분야



천년 숨소리가 담긴
역사의 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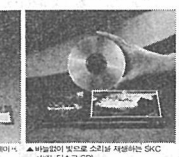
경 험은 역사입니다.
그것은 발전을 위한 토양입니다.
담아두지 않으면 새로 찾아야 하고 기록해 두지 않으면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팔만대장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 의미로 빛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천년 숨소리가 담긴 역사의 그릇으로 지금 우리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양의 기록을 담되 그릇은 더욱 작게, 고도의 정보를 담되 그릇은 더욱 간편하게, 이것이 바로 선경이 추구하는 첨단 — 磁氣 및 光메모리 분야의 기술의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경은 보다 생생한 소리, 보다 선명한 영상, 보다 많은 정보를 담아 우리를 세계에 알리고 오늘을 미래에 전하려는 의지로 일하고 있읍니다.

▲세계적인 상표로 성장한 SKC비디오 테이프 및 플로피디스크



▲바늘없이 빛으로 소리를 재생하는 SKC 컴팩트디스크(CD)

▲최첨단 음향기록매체인 SKC 디지탈 오디오테이프(DAT)

SK 鮮京그룹

(주)선경 · 선경합섬 · (주)SKC · 선경패그내틱 · 에라톤 워커힐 · 선경건설 · (주)화인 · (주)유공 · (주)흥국상사 · 유공해운

전방퇴소식서 보고대회 갖고 격렬시위

총학, "전방입소시 투쟁방향성 설정못함을 깊이반성"

신방과 학생들, 양수리서 서울까지 도보행진

◇퇴소환영식을 마친 3백여명의 학생들이 교내를 돌며 횃불시위를 벌이고있다.

전방입소한 2학년남학생(회소환영식)이 지난 4월18일(토) 오후7시20분 삼민광장에서 열렸다.

전방퇴소학생, 재학생등 7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환영식에서 손근우(법정·법학4) 총학생회장은 『전방입소에 대한 투쟁방향성이 설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한 행사로 치르려 했던 전방입소 당일의 총학생회 모습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허성욱(사회·사학4) 용인총학생회장은 4·19성명서를 통해 『현정권은 영구집권을 위해 호헌으로 몰아부치고있다』고 전제, 『4월혁명을 계승, 민족 민주투쟁전선으로 모든 학우들이 떨쳐나아가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

또한 장재영(사회·사학2)군은 『전방강제퇴소사건 진상보고』를 통해 『약속했던 자율적 자치행동 보장을 기만하고, 식사거부의 주동자로 몰아 강제퇴소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조승무(서반아어·4) 서양어대학생회장은 『4월혁명계승과 단대학생회의 결의문』이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전방입소 과정에서의 총학생회와 단대학생회는 민족해방의 위대한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86학번학우들의 부평의지를 짓눌러버린 일을 했다』고 반성하면서 『4월혁명을 계승하여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군사파쇼를 타도하고 미제를 완전히 축출할때까지 학우들은 단결투쟁해야 할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촉구했다。

이어 자유로른시간에서 영어과의 한 학생은 『입소당일 군인들은 단대학생회에서 제작·배부한 수건을 강제로 압수해갔으며, 이에 불응하는 학생들에게는 온갖 욕설과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고 밝혔으며, 사학과 한학생도 『비매오 삼영시간에 능린기를 부르며 거부하자 모두 퇴소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주장했다。

오후8시45분경 환영식을 마친 5백여명의 학생들은, 『군부독재 지원하는 미국놈들 물아내자』「4월혁명 계승하여 군부독재 타도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횃불시위를 벌이다 대기중이던 경찰이 교문을 봉쇄하자 수배중인 용인캠퍼스 민민투위원장 송단희(어문·스와힐리어4·제적)군의주도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1시간여동안 격렬한 시위를벌였다。

이날 시위로 차고앞 담장이 5m가량 무너졌으며 경찰이 난사한 최루탄으로 송준이 다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한편, 버스의 거북이운행에 항의하며 경기도 양수리부근에서 하차해 2시간30여분 동안 도보로 서울부근에 도착한 신방과 학생33명은, 시내버스를 타고 오후 10시15분경에 학교에 도착해 자체 프로그램을 가진후, 오후 11시30분경에 모두 해산했다。

과회지 원고모집

어문대 영어과

어문대 영어과에서는 창간호 과회지 제호와 원고를 오는 6월30일(화) 까지 모집한다。

원고모집분야는 학술논문, 일반논문, 시, 서평, 르뽀, 수필등이며 원고매수는 학술논문이 50매내외, 일반논문이 20매내외, 시 서평 르뽀등은 제한이 없다。

한편 기타 문외사항및 원고접수는 학과 사무실로 하면된다。

장재영군, 강제퇴소 당해

지난 4월13일(월) 전방에 부대 입소했던 장재영(사회·사학2)군이 16일(목)에 강제 퇴소당했다。

퇴소 당일 (16일) 장군은 시사시 학생들이 줄을 제대로 안섰다는 이유로 「내무반에 갔다 다시 오라」는 소대장의 명령에 항의, 「식사거부」및 「농민가」등의 노래를 부르며 대대장에게 부당한 처사에 대한 공개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이에 장군은 학생들과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군당국은 장군이 학생들을 선동한다는 명목으로 16일오전 8시경 퇴소를 결정했다。

이철승 의원집에 화염병 투척

본교생 2명 구속·기소돼

지난 4월16일(목) 오후6시30분경 본교생 6명을 포함 동부지구 4개대생22명이 신민당 이철승의원집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시위를벌였다。

이날 학생들은 『이철승의원이 민정당공작정치의 하수인으로 신민당 분당을 야기시켰다』고 주장을 하며 화염병을 투척하였다。

한편 이날시위로 본교생 유달승(동양·이반어3·휴학) 안성우(법정·신방2·휴학)군이 20일자로 구속되었다。

4·19혁명 기념제 무성의속 진행

4·19추모제·심포지움 이번주로 연기

「4월혁명제」가 지난 13일(월) 부터 18일(금) 까지 총학생회의 무계획성과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속에 진행되었다。

지난 4월14일(화)부터 17일까지 공동체문화연구회 주최로 「4·19시·판화 전시회」가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총학생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4·19기념시 11점과 시의 내용을 표현한 판화 11점등 총 22점이 전시됐다。

또한 4월13일(월) 부터 18일(토) 까지 서양어대와 야간강좌가 공동주최하는 「4·19사진전시회」가 도서관 앞과 인문과학관에서 열렸다。여기에 전시된 사진들은 4·19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약30점이 전시되었다。

한편 상경대 주최의 「4월혁명의 현재적 의미와 그 계승」이란 제하의 오충일목사 초청강연회가 지난 4월15일(수) 1시 삼민광장에서있었다。

약3백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오충일 목사는 『여압과 독재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수있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바쳐야할 것』이라고역설했다。

또한 4월17일(금) 오후2시에는 서양어대에서 마련한 서사극 「접동새 울음속에 꾀진달래」가 5백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삼민광장에서 공연됐다。이날 공연은 4·19상황을 재현한것으로 독재에맞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건설하고자하는 민중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용인캠퍼스에서는 4월6일(월) 부터 10일(금) 까지 『인권주간및 4월혁명제를 맞이하며』라는 슬로건아래 기념행사를 가졌다。

지난 4월8일(수) 오후1시30분 5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어문대식당에서, 상계동주민의 주택을 정부가 강제 철거하는 잠면과 이에 항거하는 주민들의 모습및 천막생활을 담은 비메오 상영이 있었다。

또한 9일 오후1시30분부터는 약5백여명의 학생들이모인 가운데 한신대 문화패의 고문에관한 마당극이 어문대로비에서 2시간가량 공연됐다。

민족사상연구회는 어문대식당 입구에서 9일과 10일양일간 에걸쳐 민중가요 태일및 자료등을판매했다。

한편, 23일(목) 1시 어문학관 206호에서 사월문학반주최로「4·19혁명계승 심포지움」이열리며, 4·19추모제는 총학생회주최로 22일(수) 오후1시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용인 총학생회 경찰, 심야수색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3일(월) 과 16일(목) 등 두차례에 걸쳐 경찰의 심야 수색으로 많은 자료를 분실했다。

13일 수색으로 사회부와 기획부에서 보관중인 자료, 유인물, 팜플렛등 100여종을 분실하였으며, 16일에는 대자보게재용 「4·19를 맞이하며」라는 제하의 경인지역 학생연합 성명서 30여장을 비롯 복지부 조사자료, 지난해 농활자료, 학내문제 자료등을 분실했다。

본교졸업생 3명 외시, 최종합격

지난 4월15일(수) 에 발표된 외무고시 최종합격자 20명중 본교 졸업생 3명이 최종합격하였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다음과같다。

△문덕호(서양·불어 87년졸) △장명수(서양·서반아어 87년졸) △오낙영(동양·아랍어 87년졸)

사 령

임

수습기자

강범준(사회·경제1)
국수경(어문·일어1)
권형희(야간·노어1)
권혁주(어문·인도어1)
김성수(법정·법학1)
김인호(법정·법학1)
김종원(법정·신방1)
김진태(야간·서반아어1)
류계환(서양·독어1)
문정완(동양·마인어1)
안미숙(어문·노어1)
이 진(동양·태국어1)
전영채(야간·법학1)
최진욱(사회·사학1)

<이상14명> 4월21일자

「장기집권 음모 저지 실천대회」 개최

"민주사회 건설의지로 결집할 시기"

화형식 가진후, 2시간여동안 시위벌여

「영구집권 획책음모 저지와 직선제 쟁취를 위한 '실천대회'」가 지난 4월17일(금) 오후3시30분 3백5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삼민광장에서 열렸다。

외대 직선제·내각제 비교연구협의회 회장인 양정철(법정법학3·휴학)군의 주도로 진행된 이날 실천대회에서 양군은 선언문을 통해 『이땅 민중들의 한가닥 희망이었던 민주화의 꿈을 짓밟은 호헌주장의 마각에 피끓는 분노와 적개심을 누를 수 없어 이자리에 모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군은 88올림픽과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해 『분단된 강토에서 남한에서만 올림픽을 치러 확연한 투개의 한국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분단을 영구화 시키려 한다』며 『이를 계기로 권력을 나눠먹는 음모적 권력재편이 그 무슨 평화적 정권교체란 말인가』라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7일(화)부터 전개된 내각제저지 서명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한번 외대의 민주혼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문동 8천여 학우가운데 2천여 학우가 서명하여 민주사회를 건설하고자하는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켰다』고 밝혔다。이에 외대 직선제·내각제 비교연구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화형식을 가진후, 「독재지원 내정간섭 미국놈을 몰아내자」, 「영구 집권 획책음모 호헌체제 분쇄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문을 봉쇄한 경찰들과 1시간여 가량 투석전을 벌였다。

시위를 마친 학생들은 삼민광장에 재집결해, 30여분가량 횃불시위를 벌이다가 오후 6시 30분경 해산했다。

지정좌석제 실시

복지위원회

총학생회 복지위원회에서는 도서관의 협조를 얻어 오는 23일(목) 부터 5월3일(일)까지 도서관 지정좌석제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1천6백여석의 도서관좌석이 학생수에 비해 너무 부족한데다 일부학생들이 여러좌석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된다。

도서관을 출입하려는 학생은 오전5시부터 도서관 입구에서 배부하는 스티카를 받아 학과, 성명을 기재한뒤 원하는 좌석에 부착시켜야 된다。

한편 복지위원회에서는 이도서관 티켓제를 시험기간중에만 운영할 것으로 밝혔다。

알 림

본보는 4월27일(월) 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됨에따라 3주간 휴간하고, 5월19일(화) 에 제465호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주표

▲정부, 언기법개정한다고
—껍질만의 선물일 뿐
▲모그룹회장, 투신자살
—4월은 잔인한 (?) 달
▲다음주, 중간고사실시
—학생활동도 중간점검의 시기

옛 일을

▲굳게 닫혀 있는 교문, 매캐한 최루가스, 시린 봄하늘은 개교 33주년을 맞는 외대의 외부적 모습이다。

1954년 4월…개교, 3년뒤인 57년 9월1일에 교사(校舍)를 현 이문동으로 신축 이전, 자리를 잡게된지 33년이란 세월이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졌다。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한 사라져야할 모습들, 사라졌던 일들이 다시 재현되는 희·비극의 시나리오가 우리들의 가슴에 와 박히기도 하였다。

▲최근 「학회개정요구」「해직된 학생기자 복귀」등의요구를 내세우며 10여일간 수업거부, 중간고사거부등으로 농성을 벌여왔던 부산대의사건을 접한다。그리고 한국사회의 대학들이 안고있는 아픔과 절곡을 느낀다。

1985년 여름, 용인캠퍼스4천학우들의 학내농성… 8명 수들의 잇단 타교전입이나 학생들간의 소비적인 이념논쟁과정등은 우리들의 실천적 의지들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총학생회에 대한 일반 학우들의 「불신성명서」, 교수들간의 보이지 않는 분파등의 모습은 개교 33주년을 맞는 외대를 나타내고 있는 단적인 모습。

이는 비단 33년의 역사를 맞는 외대만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지배이데올로기를 구축제적…의 사건때에도 그랬었고 그후 현 교육체계의 구조적 모순, 현체제의 절곡속에서의 우리의 대학들은 언제 어느때 어떠한 형태로 터져버릴지 모를 활화산이 필수밖에 없을 것이다。

33년간의 외대속에서도 연구한 학문과 탐구한진리의실천에 비겁함을 거부하는지난한 몸짓들은 계속되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더욱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는 교육을 도구화하고 대학을 형정적으로 구속하고있는 현체제, 이를 핑계로 주체적 형정을 펴지 못하는 학교당국의 절곡속에서 한국의 대학은 존재하고있다。

이런 상황속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란 전문기능지식에 만족하는 교수의 모습도 아니요 자신들의 관점에서 운동논리를 펴는 분열적인 모습도아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성실하게 자기활동의 중심을 어디에둘것인가 활동의 축을 어느방향으로 잡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져야할 실천적 고민의 모습들인 것이다。

외대 33년간의 게으른 역사를 절책하고 구호만 난무한 모습들을 극복하면서 현실이 시시각각 강요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끊임없이싸워나가야 한다는 철저한 목적의식속에서 개교34주년, 35 36… 그후를 맞이할 외대인의 모습이 개교 33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모두의 바램이다。 <김향희>

개교33주년, 우리의 모습은

제5회 외대학술상 논문모집

고뇌하며 진실을 되뇌이는 여러학형(學兄) 들의치열한 모습들을 찾고있읍니다。최박한 연구풍토와 알탑한 현실속에서도 꿋꿋이 살아 결실들을 보려는 노력은 면면히 이어지야 할것입니다。이에 본보에서는 자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미진하나마 「외대학술상」의 자리를 마련하여 값이 호흡하는 뜨거운 가슴을 부대끼고자 합니다。

학형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 상 : 본교 재학생
◇응모부문 : 사회과학분야 (80매~100매내외)
인문과학분야 (〃)
자연과학분야 (〃)
◇주 제 : 자유선택
◇접 수 처 : 서울—학생기자실 (학생회관 309호)
용인—학생기자실 (사회과학관 402호)

마감 : 5월 30일(토)까지

※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읍니다。

외 대 학 보

생명공학에서도 앞서가는 태평양화학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화장품에 대한 '상식밖의 이야기'

'화장품은 고도의 피부과학입니다.' 어제의 기술은 이미 옛 것 — 우리의 기술은 날로 발전하여, 그 첨단의 차원에까지 이르렀읍니다.
새롭게 바뀌어가는 화장품 기술과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화장품을 선택할 때입니다. '화장품은 더이상 기분으로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묽은 것은 순하고, 진한 것은 독하다?

'난 그 화장품이 좋더라, 훨씬 순한 것 같아'
당신은 화장품이 순하고 독한 것을 어떻게 가려내십니까?

피부 표면에 수분조절작용만을 중요시 했던 과거의 화장품을 두고 흔히들 '순하다, 순하지 않다' 라고 표현해 왔읍니다.
지금의 화장품은 피부 내부에까지 작용하여 피부노화 지연을 도와주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의 차원까지 왔읍니다.

화장품을 고를 때에는—효과높은 미용성분들이 피부 내부에까지 잘 흡수되도록 '순도높게'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화장품회사의 Know-How에 의해 좌우됩니다.
연구소의 규모와 기술수준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연구인력의 두뇌와 경험에 의해서 개발된 제품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화장품은 과거의 표현인 '순한 것' 과 '순도높은 것' 을 가려서 선택해주세요.

화장품은 안 쓸수록 상책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화장품은 안 쓸 수도 있읍니다.
피부는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피부는 20세가 지나면서 본래의 기능이 저하되고 노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위는 대기오염, 각종 공해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피부의 건강을 잃기도 쉽습니다.
피부에 직접 화장는 자외선조차도 노화를 촉진시키는, 피부의 무서운 적입니다.

화장품은 피부 청결작용과 함께 피부에 없거나 부족되는 영양·미용성분을 공급, 피부의 신진대사, 피부세포의 활성화를 도와 피부노화를 억제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제나 젊고 건강한 피부를 지니기 위해서는 항상 피부를 청결히 하고, '순도높은 화장품' 을 선택하여 정성껏 피부를 가꿔주어야 합니다.

화장품은 피부의 필수품입니다.

외제니까 좋다?

극히 일부일 수도 있지만, 굳이 외제화장품을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향이 마음에 들어' '세련되 보이잖아'—
외제를 선택하는 애매한 이유도 많습니다.
그러나 외제를 사용한 결과 기분 좋은 것은 잠시뿐 —. 외제병이 피부병으로까지 번져,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우리 피부는 피부색, 두께, 피지분비의 양이 다름은 물론, 알레르기 반응도에서도 외제 8.8%, 국산 4.2% (대학 피부과학 연구실 발표) 로 외제가 두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기후조건, 식생활이 다른 그 나라 사람들의 피부특성을 기초로 한 외제화장품의 성분과 작용이 우리피부에는 맞을리 없기 때문이죠.

우리 피부 특성을 살려, 첨단의 기술로 보다 순도높게 만들어지는 우리의 화장품을 애용하는 것도 고운 피부를 갖기위한 또하나의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아모레화장품

혁명70주년

사회주의의 이해를 위하여 <6>

소련체제-경화체제인가, 다원체제인가

경화체제 초창기 전체주의적 특징으로 당에 의한 중앙통제 강조

다양한 의견과 이익이 제도적장치의 수렴을통해 반영 다원체제

소련체제에 관한 논의는 내부적개혁과 변동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로 기우는 추세

김 석 환
〈본교대학원 동구지역학과 졸업〉

Ⅰ. 머리말

소련을 경화체제로 볼 것인가 다원체제로 볼 것이가라는 물음은 사회주의체제가 경화체제이나 다원체제이냐라는 물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다。그것은 소련이라는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소련형의 국가이지 않으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현재 소련의 국가체제가 과연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이냐는 의문이 존재하는 현실 (Paul Sweezy는 소련을 사회주의 체제도 자본주의 체제도 아닌 제3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소련을 우리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으며 그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체제가 과연 전체주의적인 경화체제인지 아니면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가능한 다원체제인지의 물음은 유용할 수 있으나 소련을 가지고 모든 사회주의 체제가 경화체제라든가 혹은 다원체제라든가 하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자 한다。

Ⅱ. 소련체제를 바라보는 시각

혁명 70주년을 맞은 오늘의 소련 체제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크게 두 경향으로 나눌수가 있다。하나는 소련을 철저한 전체주의적인 국가로 간주하는 것으로 브레진스키와 프리드리히에 의하여 대표되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전체주의적인 접근방법이 소련내부의 다양한 변화나 흐르시쵸프 이후의 소련 정치를 설명하는데에 적합치 못하다는 지적으로부터 다원주의적인 견해이다。이러한 다원주의적인 접근법은 주로 1960년대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그 대표적인 학자들로서는 튜크 대학의 하르핀 발레리 뽄스, 콘 에를스 등을 들수 있다。

1. 경화체제로 보는 시각

소련체제를 경화체제로 보는 시각은 사회주의 체제 혹은 공산주의 체제는 오로지 하나의 계급정당만을 용인하고 그 계급정당이 모든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익과 의견의 수렴이 되지않는 단일주의 체제로서 체제의 불안정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그런 체제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또한 전체주의 체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브레진스키와 프리드히가 들은 다음의 여섯가지 요인을 소련체제에 적용시킴으로써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가진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즉 소련체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중간집단들의 역할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용인된 하나의 공식적 이데올로기①로 무장한 단일대중정당②이 모든 정치적인 활동을대행하며 모든 군사적 전투수단에 대한 통제③가 당에의하여 독점되고 대중통신수단④및 경제의 중앙통제와 지도⑤및 경찰통제에 의한 테러체제⑥로서 존재하는 전형적인 경화체제의 특성을 갖고있는 나타라는 것이다。

또한 소련이 경화체제라는 이유는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등 각 학문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고있는 이론들의 개발및 연구들로서 나타난 행정규율사회 (administered society), 지시사회 (directed society), 이념체제 (ideological system)및 명령우위사회(command-dominated society) 등으로 불리울수 있는 체제적 속성에 의하여 한창 강화되고 지지 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러한 전체주의적인시각에서 본 소련체제의 성격이 해는 스탈린 집권기의 공업화의 과정과 정치적 숙청및 사회의 변화에 대한 설득력있는 해석으로 냉전시기의 미국및 서방학자들의 주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실제로 이데올로기적 행동주의 (ideological actrism)와 구조적 일원론(structual monism)에 입각한 소련의 정치는 스탈린기를거치면서 사회변동을 향한 높은 구조적 동인을 정책수요를 설명해 내지못하는등 소련정치의 과정적 분석에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체제수립기이후의 소련을 분석하기위한 새로운 모델의 개발이 논의되었으며 스탈린 이후의 소련사회를 보는 새로운 이론적 논의는 지시사회 모델과 제도적 다원주의 모델로 나뉘어지면서 열띤 공방을 벌이게 된다。

현재의 소련체제를 바라보는 학문적인 분석방법과 논의로 이 두가지 모델사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극단적인 전체주의적인 시각은 상당히 퇴조하고 내부적인 개혁과 변동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기구적다원주의 (소련식으로는 민주적 집권주의—democratic Centralizm)의 견해로 기우는 추세이다。

그러나 초창기 전체주의 모델을 개발했던 브레진스키외 브레진스키와 그로스 같은 경우는 다원주의 모델을 적용하여 스탈린이후의 소련체제를 분석한 하프의 이론을 틀렸다고 지적하면서 소련은 여전히 전체주의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련을 경화체제로 보는 이론적인 발전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약간씩 변화된 양상을 보이며 다원주의적인 경화체제로부터 다원체제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이고있으며 체제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서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있다。

즉 이들은 현재의 소련체제가 고전적 다원주의의 특징으로 인정되고있는 다음의 여섯가지와 반드시 일치하지는않지만 이와 유사한 단계의 기능을 수행할 제도적인 장치들을 체제내에 가지고있다고 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원주의 체제라고 할 경우 그 체제가갖추고 있는 제 특징은 다음과같다。

첫째, 사회에 이익의 다양성이 존재한다。사회나 정치제도에 완전한 통일체도 지배적인 단일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정치과정은 상호 다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의 연합이 단절되거나 이동하기도 하는복합체속의 분경을 내포한 채로 진행된다。

셋째, 시민과 관리들은 정치를 대체로 가능한 것의 기술이라 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소련체제가 위와같은 고전적 다원주의와 다른 점은 공산사회의 전체성이는 이데올로기적인 목표를 가진 어느정도로 통일된 제도적 다원주의라는 사실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소련체제의 다원성을 강조하는 견해들은 70년대 이후의 논쟁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되었으며 소련이 그들 사회를 해석하는는 민주적 집권주의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하여 소련체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소련체제의 다원성을 강조한 이와같은 견해들은 또한 전체주의적인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게되었는데 그것은 다원성을 강조한 이론들이 정책결정을 둘러싼 지도층의 분열과 산업화에 따르는 이데올로기의 쇠퇴및 이에따른 당권의 약화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난이다。

즉 다원주의 이론들은 오늘날의 공산권 정치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변동의 개괄적인 양상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다른말로는 이 이론이 공산권 정치체제 전반에 걸쳐 작용될수 있느냐는 보편성의 문제에 대해 의심을 받고있다는 것이다。또한가지 다원적 접진주의 모델이 갖고있는 약점은 그것이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적여할과 당이 갖는 배타적 우위성의 원칙을 과소평가한다는점이다。이와같은 다원주의 모델의 약점은 70년대 이후의 학문적 발전에 의거하여 통제조합주의의 보완적 모델을 내놓게된다。통제조합주의에서는 소련의 정치를 기존의 일원적 전체주의성과 산업화에 따른 정치과정의 갈등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있는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와 이익집단의 문제,기획과 합리성의 문제, 대중의 역할문제를 타당성 있게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다。

필립 슈미터는 통제조합주의를 사회적 혹은 진보적 통제조합주의와 국가 또는 권위주의적 통제조합주의의 두 종류로 나누고 있으며 통제조합주의에 관하여 다음과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통제조합주의란 구성단위들이 강제적, 비경쟁적, 위계적 명령체계내에서 국가에의해 인정되고 허가된 제한된 기능적 범주들로 조직된 이익표출의 한 체계라고 볼수 있다。이같은 구성단위들은 지도자 선출이라든가 요구와 지지의 표출에대한 국가의 통제를 준수할 것을 담보로 그들의 고유법주내에서 독점적 자율권 사권이 인정된다』

분스와 에를스 같은 경우는 소련에서 브레즈네프 체제이후 나타난 집단지도체제의 강화, 소련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기능주의 강화, 당 인사권을 통한 타국가기관에 대한 당 통제의 강화등의 현상을 예로 들면서 통제조합적인 모델을 적용한 실증적 증거들을 밝히고 있다。

Ⅲ. 맺는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소련체제를 바라보는 학문적 시각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그것은 초창기의전체주의적 경화체제 논의로부터 최근의 다원주의적 통제조합주의 의 논의로의 이행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다원주의의 고전적 원칙들로 하프가 제시한 여섯가지의 원칙을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에 적용해 소련체제에서 그와 비슷한 형태가 나타난다고 해서 소련의 체제가 다원체제이고 그와 유사한 기구적 혹은 형태적인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원체제가 아닌 경화체제라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고전적 다원주의체제의 원칙을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하의 국가들에 적용시킬경우에도 그 조건을 전부 다 만족시키는 국가가 드물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고 하겠다。

소련은 혁명을 통해 노동자 농민이 세운 국가이며 그혁명은 이제 70주년을 맞게되었다。

러시아혁명 70년을 맞는 금년의 입장에서 과연 오늘의 소련체제가 70년전의 러시아 짜르체제와,비교하여 보다 더 다원화된 다원주의 체제, 보다 더 자유로운 인간적인 체제인가 아니면 그러시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었던 짜리즘을 단지 거꾸로 뒤집어놓았을 뿐 실정은 하등 나아진 것이 없는 경화체제로 여전히 작용하는 체제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학문적인 대답은 아직까지 자신의 이해을로기적 입장을 따른 평협선을 달리고 있을뿐이다。

글 싣는 차례

1. 연재를 시작하며
2. 남녀 분파주의와 정치체제의 변화
3. 경제개발전략을 둘러싼 논쟁 (상·하)
4. 사회주의경제의 위기와 개혁제
5. 소련체제—경화체제인가 다원체제인가
6. 소련체제 제(諸)연구방법론의공과
7.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전개와 다원화경향의 이해

◇서방기자들과 어울리고있는 고르바쵸프

30년 전통의 대학생을 위한 外國語 專門 Training Center
영어 / 일어
■ TOEFL 아카데미(이재옥) ■ VOCABULARY ■ 영어 순해 ■ 대학 기본 영어 ■ 성문 종합 영어 ■ 영어 실력 기초 ■ 한인회화
■ 입문 ■ 초급, 중급. ■ 일본어 회화 ■ 다이제스트 ■ NHK방송일어 ■ 유학일본어L/C ■ 관광일어
서반아語 中国語 獨語 佛語
KAVEP 시청각 영어회화 코스
■ 오천 전통의 KAVEP과 HIA-V의 장점만을 살려 ■ 전반 12월 정원의 초·중·고급 및 중급Ⅰ·Ⅱ ■ 정확한 TEST에 의한 합리적인 반편성으로 ■ 하루 2시간씩 60분 강의/60분 어학실습교육 ■ 최신의 시설과 최고의 미국인 강사진으로 ■ 미국 대학 ELI 교재를 사용 탁월한 교수법으로 ■ 6학년간이 저희 KAVEP 시청각 영어회화코스의 기량입니다.
KOREA AUDIO VISUAL EDUCATION PROJECT
특설 대학원시험준비반(1월 대비)
한국외국어학원 (HLI)
종로2가태극당뒤 ☎ 732-0601/4

軍·행정병 모집
육군 참모총장 위촉처
자격 특전 : 1. 각군 17~26세 고졸이상 해군중졸이상 (복학조절가능) 2. 수료후 자격증취득, 각분야별을 거쳐임대 (교련훈련자 발췌)
펜 글씨 차트 · 도안
관인 인성 서예 차트 학원
732-5346 735-3771

YMCA
개강 매월 1일
英語·日語·中國語 佛語·獨語·漢文 中等教師(중등교사 특별반) 美國人회화투사(회화전시실)
TOEFL/New Horizon 회화 Vocabulary/영문법 회화/중학영어1, 2, 3/기초영문법 東京YMCA 日語/영문법 독해
YMCA ☎ 732-8291·735-1400

정보처리요원 전문교육기관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처리기사 ●KEY ENTRY
대형컴퓨터실 개방실습 매월초 개강
실습기종 formation 4000(IBM OS)
■ 프로그래밍과정 : 새벽, 오전, 오후, 야간 EDPS, COBOL·Ⅰ, Ⅱ, FORTRAN, ASSEMBLER, IOCS, 실무실습, BASIC, CAD, 워드프로세서
● 대학생출퇴한 정보처리기사1급대비 방학특강 1차 : 1986. 1. 6~2. 7 (5주) 2차 : 1986. 1. 27~2. 28 (5주)
※ 전공에 관계없이 현재 3학년, 4학년 및졸업자이면 응시할수 있음. 기사1급소지자 군전산병 업대회무선 "통통속의 호부른 정보처리로 환영합니다"
●PASCAL, PL/I 특강과정 개설
서울 735-0211~5 르로2가YMCA 주한외국인회(일)(2층) 인천 73-7383, 74-8915 (월·인천의 속한곳임) 대구 65-0578 (남구명덕3동 남구학원)
서울컴퓨터학원

최신교육學特講(上)(下)전 389回 講義記念!
教育學博士 李大成 교육실 교수 녹음 카세트 테이프 판매중
教育學特講 上·中·下·特Ⅰ·特Ⅱ 반평 30분짜 돌파기념!
中等教師 校監昇進
中等教師 順位考査·校監 昇進試驗 的中 대비
教育學特講 上·中·下 카세트 內容 가격 안내
本 녹음카세트는 서울 YMCA 경기프로그램인 中等教師班·初等教師班·校監昇進班의 教育學 교재인 最新 教育學特講(上)·(下)전을 YMCA강당에서 700名 수강자에게 著者인 李大成 교수님이 직접 강의한 생생한 녹음테이프임.
※ 本 녹음카세트는 市販 없음. 따라서 本社에서만 판매함.
교육기초·교육원리·교육사·교육철학·교육과정·교육심리·정신위생·학교 및 학급경영·교육제도·국민교육헌장·새마을교육·시사 및 일반교양(부록) 해방 이후 교육학 실제시험문제 및 정답 전부 수록.
▲특대 8,000원 ▲카세트25개×3,000원(개당)=75,000원 ▲송료 2,000원
教育學特講(下)카세트 10개 과목
교수 및 학습지도·시청각교육·교육평가·생활지도·교육연구·학교와 지역사회·교육행정·강학론·교사론·교육법규·총합평가문제해설(부록) 해방이후 교육학 실제시험문제 및 정답 전부 수록.
▲특대 8,000원 ▲카세트28개×3,000원(개당)=84,000원 ▲송료 2,000원
구입방법 (녹음카세트)
▲현찰·우편송금·전신환
(사무실) 서울·종로구 종로2가 YMCA 3층312호
(우편대체) 계좌번호 010041-31-504316 종각출판사
(우체국이용) '110 서울화물 우체국사서함 969호 종각출판사 앞'으로 소정의 금액을 「소액환」이나 「통상환증서」로 반드시 등기로 우송하시면 즉시 카세트를 발송해 드림.
鍾閣出版社 ☎ 734-1161·739-5551
YMCA 3층 312호

號外!
問題作家/問題小說
第4世代
'小說문학'의 새로운 좌표를 긋는 第4世代
송춘섭 산속의 집
더 높이 날고 싶다! 이 세상 전체를, 이 시대 전체를 으스러지게 개안기 위해 산 속으로 들어가는, 한 젊은이의 처절한 투쟁!
박상기 응달의 풀
우리네 밑바닥 인생에 대한 페이소스가 진득하게 깔린 작가의 날카로운 시선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
第三企劃 마포구 공덕동 79-15 전화 번호 718-6971

KH 英字日刊紙 The Korea Herald 廣告
개강 : 5월 1일
◎대학생·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佛語·独語·中国語
*Korea Herald 社說 *Time·Digest·영문해석 *TOEFL 이재옥 아카데미 *Voca 22,000·33,000 *영문해석·L/C, Hearing *성문(綜合·基本)영어 *생활 영어회화 *英作文·三位一体 *영어실력기초·기초영어 *미국인 회화 *Stream Line English *AFKN-TV, 스크린 会同 *English Alive *日語 스크린會話 *일본인 회화 *日語 다이제스트 *文藝春秋 *中國語 독일어·프랑스어
코리아 헤럴드 外國語学院
지하철 을지로 입구역앞 ● ☎ 757-0419·0420
※관공서 기업체의 외국어 위탁교육은 별도로 협의
시청각 영어회화 코스 개강 ➡ 5월 6일 (선착순마감)
●기초부터 최고급까지 6단계—각40일수업(2개월)
●전원강의 경험이 풍부한 Native Speakers
TOEFL종합 코스 개강 ➡ 5월 6일
●TOEFL을 Structure, L/C, Reading, Voca, Writing으로 학습파목을 세분한 고득점 코-스
Korean Language
●Intensive Course(40days/2months)
●Conversation Short Course(16days/2months)
코리아헤럴드 語学研修院
퇴계로 본사사옥3층 지하철명동역앞 ☎ 756-7711
신문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특별기획

우리에게있어 「복지」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을 되돌려주고 있는가<5>

글싣는 차례

1. 시리즈를 시작하며—복지사회와 우리의현실
2. 산업재해와 노동복지의 실태
3. 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택정책의 현황과 열세민
5. 시리즈를 마치며—좌담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사회복지에 관한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번 좌담회를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리작업을하는 의미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읍니다。우선, 흔히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섭사리 우리 주위에서 접할수 있는데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기—복지국가는 열국의 비버리지에 의해 고안되어 체계를 갖춘 사회체제의 한 형태로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 그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비버리지 이전에도 국민의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들이 몇몇 존재하기는 하였지만,전체적인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겠읍니다。

▲박종우—결국 복지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려는 체제로서, 이의 책임을 전체 사회 구성원이 담당하는 것이며 국가가 그 기능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라하겠읍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로 경제개발에 주력해 오다가, 최근에 들어 복지국가, 복지사회를 추구한다는 정책적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국가나 국민이 복지의식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경제부문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강정기—정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정책우선순위에 있어서 60년대 이후 서구의 근대화 이론에 의거해서 정책방향이 결정되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일차적인 시책은 경제성장에 그 주안점이 두어졌고 자연히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책은 배제필수 밖에 없었다고 하겠읍니다。

▲박종우—최근에 정부측의 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경제성장의 이익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이로인한 국민들의 불만이나 저항을 무마하기위한 것인지를 생각해보는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종해—경제사회개발을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사회개발이 경제개발에 부담이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개발이 소비재로 여겨지고있기 때문에 사회개발을 경제개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펀개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강정기—이의 단적인 예가 최근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보고서가나왔는데 이를 보면 국민연금제도가 경제개발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타당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국민들은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우—사회복지라는 용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읍니다。미국의 경우 「복지」란 말은 매우 경멸적으로 사용됩니다。미국 사회와 같이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곳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부조를 받는다는것을 수치스럽다고 여기고 있읍니다。그러나 유럽쪽은 오히려 국가에 요구하는 것을 권리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가지는 복지에 대한 관념은 복지이념의 기본적가치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하겠읍니다。 예로서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함 운명 등과같은 개인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고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것이 문제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대하건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인 여건이 어렵졌지만 복지에 대한 요구권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국민의 복지에 대한 의식수준은 복지에의 요구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결국 정책의사결정의 기초는국민의 요구이니까요。그래야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증대되지 않겠읍니까。

▲김종해—그점에 있어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의료보험의 경우 식구가 많으면 보험료도 많이 내야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국민들 사이에서 강조되고 있읍니다。즉, 복지의식이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강정기—사회복지를 전개함에 있어 능력이 없는 자에대한 복지는 수익자부담의 원칙 얼마나 존재하며 그들의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정기—저는 복지에 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기보다는 관심을 가지는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원 사건의 원인에 있어서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자세 그리고 정부의 조정관계자들이 복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의식이 없었다는 점을 들수 있겠읍니다。여기에서 복지국가라는 시정목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를 뒷받침해 줄 실제적인 활동 또한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지요。

▲박종우—사회복지적 보호대상이 되는 인구집단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이 한다면, 복지원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운영자의 성격, 종사자의 태도문제보다는 정책목표나 가치가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적 편의성 위주로 정책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중산층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정기—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행정적 편의성을 크게 강조한 듯한 인상이 강합니다。이러한 행정적 편의성보다는 기본적인 가치, 신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우—항상 느끼고 있는 문제이지만 기본적인 방향이 틀리면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일각에서는 없는 것보다 그나마 이런것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결국 더 늦기전에 전체적인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읍니다。

▲김종해—처음부터 즐거리선순위를 재검토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여점이 두어지는 방향에로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현재 나와 있는 시행예정 제도들의 초안들을 보면 고질적 문제점들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어요。

▲강정기—이러한 정책입안을 하는 과정에 이상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가집단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경제부문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들로서 사회복지분야의 영역확장을 위한 분야를 들수 있다면여떤것들이 있겠읍니까。

▲박종우—우선 노동복지분야를 들수 있겠지요。자본주의체제 내에서의 노동은 그 상품적 속성으로 인해 재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특히 성장의 이익에서 소외되었다는 의식을 갖지않도록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정기—영세민에대한 대책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사회의 하층부문에 위치하고"있는 이들의 최저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김종해—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자가 수십만에 이르고 있읍니다。이들의 사회적응 및 생활환경을 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도적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현행 복지제도가 「정치적 성격」을 탈피하지 않는한, 의료보험 전국 확대실시와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의 모순을 극복치 못해

▲박종우—지금까지의 논의 내에는 사회복지제도의형성 및 시행의 주도적 역할을 국가가 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행하려면 가장 중요한 재정적인면에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재정적인 부분은 부담하지 않고 감독만 행하며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식으로 국가의 정책시행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점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해—사회복지제도의재원조달에있어서 능력에 따른 차별을 당연시하는 기존사회의 인식은 변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개인적차원에서 탈피하여 사회통합이라는 견지에서 사고할수 있어야한다고 봅니다。또한 사회복지에대한 국가의 책임을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이를 요구할수 있어야한다고하겠읍니다。

▲강정기—사회복지제도들을 운용해 나감에 있어서 국가의 현실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하겠읍니다。물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발전과정에서 국가가 사회복지에 막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그렇다면 민간부문에서 노력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가의 개입이 너무커서 민간부문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박종우—민간부문의 재원동원을 위해서는 매스컴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또한 사회복지제도를 일관성있게 운영해나갈 수 있는 정부차원의 기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김종해—특히 자본가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겠읍니다。제헌헌법에 보면 노자균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는 사회의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겠지요。

▲박종우—또한복지는은혜적인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주장되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권리의 인식과정에서 불평등이해소되어야 한다고 하겠읍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사회복지제도로는 사회의 불평등한 분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최저생활수준을 확보케 해주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아니며, 앞으로 이들계층에 촛점을 맞추어 나가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인것 같읍니다。이를 통해 사회통합이라는 가치도 실현이 되는 것이구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제도의 시행에 있어 국가는 감독만이아닌 현실적 지원과 책임이 있어야할것。

"우선, 복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요구」가 재검토 되야겠지요。"

> …한국 국민들은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나태함, 운명으로만 간주하고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임을 깨닫지못하고 있읍니다。

정책도 경제성장 제일주의에서 표면적으로는 탈피하여 경제사회개발을 중시하고 있는데, 80년대에 들어 복지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내걸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선적으로 복지가 정책목표로 채택되는것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즉 사회복지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강정기—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 빈곤의 원인에 대한 책임은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지에 대한 의식이 단적으로 표현된 것이 최근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복지원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우—복지원 사건은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끈 사건이었읍니다。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하필이면 이름이 왜 복지원입니까? 부랑아 수용소를 복지원이라고 명명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약 이 사건이 사회통제, 사회보호적 성격을 띤 제도적인 기관이라고 한다면 아마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결국 복지에 대한 비난이 던져지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개선되려고 하는 낮은 복지제도 수준을 오히려 역행적으로 이끌 수도 있는 위험성을 지닌다고 하겠읍니다。

여기에서 무조건적인 비난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전문가,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있어왔는지 반성해 보아야 하며, 이러한 보호대상 사업들이 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읍니다。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기관에 주는 보조금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정기—결국 부랑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자, 노인 등과 같은 요보호계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고 하겠읍니다。그리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 목적성을 재검토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는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고 중산층만을 위한 제도라는 것 등과 같은 여러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읍니다。기존의 정책들의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우—거시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뚜렷한 주요틀이 없이 전개되어 왔고 통일된 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관리·조정하는 주무관청이 부재하다고 하겠읍니다。또한 기존의 정책 차체가 를 가지고 시행이 된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실제로 정책입안자들을 만나보면 목적이 제도 그 자체를 만드는 것이었어요。이러한 맥락속에서 행정적 편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지 않겠읍니까。

결국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제도존재의 명목에 밀려 현재 상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박종우—사회복지제도가정부수준에서 결정된 연혁을 살펴보면, 해방후 일제하에서의 조선구호령에 기초해서 존속되다가 5.16이후 군사정부때 일본의 것을 내용·겉모없이 무조건 모방하여 무더기로 입안하였고, 80년대에 들어서도 같은 맥락으로서 조금 나아졌지만 질적인 변화는 없었고 이에대한 고려도 부재하다고 하겠읍니다。

▲강정기—현재 체제와 테두리 내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복지제도 필요성의 등가가 정치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석 자

○감 정 기 교수(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 종 우 교수(부산산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 종 해 교수(성심여자대학 사회사업학과)

○사회 : 최 균(서울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3학기)

<기록·정리 : 조 경 운 기자>

알 림

해마다 4월, 5월이 돌아오면 우리들은 많은것을 생각하게 됩니다。독재와 폭정에 항거하고 민주를 위해 산화해간 많은 선배영령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실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통한의 눈물을 외대학보에 쏟아 보시지 않으렵니까。말못하는 시대, 진정한 말을 원하고 있읍니다。

현장수기, 소논문, 칼럼등 형식에 제한없이 받고 있읍니다。

접수장소 : 서울캠퍼스—학생회관 309호 학생기자실

용인 〃 —사회과학관 402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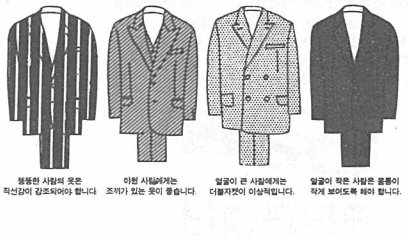
〈 사회부 〉

이제 이런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입학을 맞아, 새 학기를 맞아 새롭게 펼쳐질 대학생활에 학문과 자유와 진리가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희의 이런 바램이 아니더라도, 보다 큰 배움의 터전에 첫발을 내딛거나 한단계 높은 진리의 길에 한걸음을 더 내딛게 되는 대학인이라면 누구나 싱그러운 꿈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새삼을 맞아 더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저희도 여러분과 다름없는 것이기에, 여러분께 더욱 큰 축복과 함께 뭔가 도움이 될만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캠브리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긴 도움 말씀이라 해봐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옷에 관한 것을 넘어설 수는 없읍니다. 하지만 옷에 관한 일은 저희의 전부인 동시에 여러분에도 꽤 요긴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 작디작은 정보는, 이차피 사회에 나서면 늘 입어야 하고, 대학생활속에서도 한벌쯤은 갖추어 둘 필요가 있는 신사복에 관한 것인만큼, 알아두시면 꽤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믿읍니다.

'멋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선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얼마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그리고 어쩌면 그런 거부감은 대개 멋장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에 대하여 차림새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라거나 원래 옷가지가 많은 사람들이라거나 또는 체격이 남달리 뛰어나 아무 옷이나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나 하는식의 선입관을 갖는데서 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이 멋장이라는 멋진 말이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멋장이가 비교적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리 흔하지도 않고 그들 모두가 멋장이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체형에 몇가지 결점이 있거나 옷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도 옷차림의 기본적인 몇가지 법칙만 지켜주면 그에 못지않은 멋장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옷차림에 그리 세세한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자기체형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자기 연출에 대한 기본원칙을 세워놓고 비록 가짓수가 적은 옷이라도 잘 어울리게 입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동동한 사람의 옷은 직선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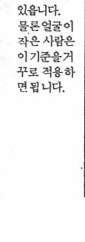
아담 사람에게는 조끼가 있는 옷이 좋습니다.

얼굴이 큰 사람에게는 더블자켓이 어울립니다.

얼굴이 작은 사람은 몸통이 작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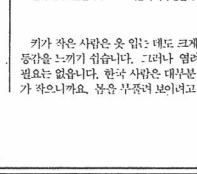
뚱뚱한 사람은 둔하고 느린듯한 인상을 주기가 쉽고 전반적으로 곡선감을 느끼게 하므로 명쾌한느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결점 때문에 뚱뚱한 사람의 옷은 될 수 있는대로 짙은 빛깔이 좋습니다. 또 잗은 빛깔이라도 탁한 색조의 옷이 좋은데 그것은 짙고 탁한 색조가 차분히 가라앉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옷감은 표면을 매끄럽고 단단하게 가공된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런 짙감은 물체를 부풀려 보이게 하지 않고 축소시켜 보여 줍니다. 뚱뚱한 사람의 옷 스타일은 직선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늬가 있는 옷일 경우 그 무늬는 선명한 것보수록 좋으며 특히 세로줄 무늬 같은 직선감이 있는 천을 쓰면 명쾌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깃과 짓사이 그리고 첫번째 단추를 잇는 브이라인은 필수록 깊이 파는 것이 좋으며 깃도 넓게 할 필요가 있읍니다. 몸이 야윈 사람은 대체로 뚱뚱한 사람의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조끼가 있는 옷을 입으면 브이라인의 깊이가 줄어들어 보이게 되므로 훨씬도움이 된다는 것이 야윈 사람들이 염두에 둘 일입니다.

얼굴이 몸통에 비해서 큰 사람은 몸이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 밝은 톤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크게 보이려면 체크무늬가 가로 파지는 무늬가 적당하며 천의 질감은 거친 쪽이 좋습니다. 그밖에 상대적으로 어깨선이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좋으며 크다는 인상을 온몸에 고루 분산 시키기 위해 깃이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깃이 크게 강조된 더블을 입으면 야주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읍니다. 물론 얼굴이 작은 사람은 이기준을거꾸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리가 굵은 사람에게는 일자 바지가 좋습니다.

다리가 몸 전체의 균형을 생각할 때 유난히 짧은 사람이 있읍니다. 꾸물거리고 답답해 보이는 것은 뚱뚱한 사람보다 심할 수도 있으므로 옷의 빛깔, 무늬, 질감은 뚱뚱한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고리를 좀 짧게하는 것이 좋지만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엉덩이 중심에서 1~1.5센티미터쯤 짧게 올라가는 길이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소위 나팔바지나 말보바지는 다리가 짧아보이는 결점을 더욱 심하게 드러내므로, 허벅지에서 발등까지 옆에서 보면 넓이가 같아보이는 일자바지를 입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리가 길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이니까요.



키가 큰 사람은 큰 무늬가 어울립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무늬가 좋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옷 입는 데도 크게 열등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읍니다. 한국 사람은 대부분 키가 작으니까요. 놀음 부풀려 보이려고 지나치게 밝은 톤의 옷을 입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간 톤을 택하는것이 좋습니다. 빛깔이나 색조가 극단적인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천의 질감은 거친 것이 좋으며 무늬는 작은것이 좋습니다. 주머니 덮개나 깃과 같은 옷의각 부분을 작게 만들어야 키가 작은 결점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큰 치수의 옷을 헐렁하게 입는 것보다는 자기 몸의 남성적인 곡선을 제대로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키가 작더라도 어린 아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어떠냐고요?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걱정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옷을 잘 입는 방법중의 아주 기본적인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누구나 자기 옷차림의 기본원칙으로 삼아도 좋을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드자패션 캐드브리지 ALL NEW WOOL

아! 슬퍼요/아침 하늘이 밝아오며는/달음박질 소리가 들려옵니다/저녁 노을이 사라질 때면/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아침 하늘과 저녁노을을/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오빠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잊을수 없는 4·19/학교에서 파하는 길에/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오빠나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우리들은 오빠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4·19의 문학화와 문학의 4·19화
—시(詩)를 중심으로

우 찬 제 〈문학평론가〉

Ⅰ.머리글

자유로운 인간을 위해 쓰는 자유로운 작가의 주제는 오직 「자유」 하나뿐이라는 사르트르의 진술은 이미 잘 알려진이야기다。 「있는 현실」 의 모순성과 파행성을 부정하고, 파괴하고, 저항하며 「있어야할 현실」 을 추구하고 지향하는것이 문학의 되돌릴수 없는 심층이라고 할때, 그 심층의 중핵적인 자양분은 바로 자유,그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자유」 는 학문에 의한 시적 정의를 추구하는데 있어 원인이자 결과에 값하는 것이라하겠다。 말을 바꾸면, 문학은 억압과 저항의 변증법에 의한 자유의 추구에 다름 아닐 터이다。

이러한 자유는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표층구조를 이루며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그 심층구조를 밝혀보면, 한시대의 공통된 구성적 상징의 문법을 도출해 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징표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다。 우리의 현대문학사에 있어서 자유의 체제는 여러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것은 소위 「4·19문학」 에서의 그것이라 하겠다。

4·19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반봉건 식민사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출발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온갖 부정과 억압의 혐악에 대항해 외쳤던 자유와 민주에의 함성이 아니었던가。 피의 화요일에, 마침내 한국민중의 집결된 에네르기가—동학혁명과 3·1운동을 전개해왔던 그 힘이—최초로 억압의 사슬을 벗겨내리는데 성공했던, 바로 그것이 아닌가。 물론 사회과학적인 엄밀한 인식의눈으로 볼 때, 그것은 사회·경제적인 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끝난 미완의 혁명에 다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현대사에 있어서 극적인 위기사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 까닭에 4·19의 열정과 함성은 위기사였던 만큼 문학적 상상력에 환기되고 또 부각되어 나타났다。 (물론 위기사라는 점에서의 6·25문학 또는 분단문학과 비교할 때는 아직 열악한 형편이지만) 4·19현장에서의 자유에의 함성은 문학텍스트 안에서 때로는 직설적인 힘으로, 때로는 비유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나타났다。 이른바 「4·19의문학화」 라고나 할까。 이와 아울러 「문학의 4·19화」현상 또한 주목될만한 관심거리다。

문학의적인 세계에서의 4·19는, 문학내적 세계는 4·19에도 영향준바 커서, 60년대이래의 문학 논의, 특히 50년대문학과의 지속과 변화상을 비교, 추적함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변수로 4·19가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장르의 특성상 4·19의 문학적 대응및 탐색에 보다 효과적이었던 시를 중심으로 「4·19의 문학화」 와「문학의 4·19화」 양상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4·19의 문학화

4·19를 다루고 있는 시편들은 대개 몇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19현장의 열기와 감정 등에 시적자아가 즉각적인 동화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를 우선 볼 수 있겠고, 4·19의식이 시적자아에 의해 외향화되고 있는 경우와 반대로 내향화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이른바 「수유리 탈춤형」 의 시에서 보여주는 원점회귀의 시들과 단순한 찬가 형식의 추도시 등으로 거칠게나마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우선 즉각적인 동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시편들을 보면, 강명희 (4·19당시 서울 수송국교 4학년생) 의 「오빠와 언니는 왜 총에 맞았나요」 를 비롯한 학생시들과, 김수영의「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 신동엽의 「아사녀」, 윤상규의 「역사를 증언하는 자들이여 4·19의 힘을 보아라」, 김용호의 「해마다 4월이 오면」 등과 박목월, 박승옥, 성찬식, 신동문등의 시편들이 이에 속한다。

아! 슬퍼요
아침 이슬이 밝아오며는
달음박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 노을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 노을을
이 빛나는 파도여
해일이여
—조지훈, 「마침내 여기 이르지 않곤 끝나지 않을줄 이미 알았다」 일부—

우리들의 목표는 조국외승리
우리들의 목표는 지상에서의 승리,
우리들의 목표는
정의, 인도, 자유, 평등, 인간애의 승리인, 인민들의 승리인,
우리들의 혁명을 전취(戰取)할 때까지, …
혁명이여!
—박두진, 「우리들의 깃발을 내린것이 아니다」 일부—

박두진의 시는 혁명의 과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함을 깨닫고 있는듯한 면모를 보여준다。 당시 가장 뜨겁고 대담한 목소리로 혁명을 찬양한 시인이었던 김수영은 「민주주의는 이제 오백년 걸려서 온다는 이 말이 믿기지 않는다」 며, 「우리가 찾은 혁명을 마지막까지 이룩하자」 라는 발화조차 서슴지 않았다。 「어째서 자유에는/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간파한 까닭일것이다。

같이 4·19현장에 동화되어 있지만 민족사의 맥락에 기초한 역사의식에서 4·19를 접맥시켜 인식의 심층을 더한 이는 신동엽이었다。

4월19일, 그것은 우리들의 조상이 우랄고원에서 풀을 뜯으며 양달진 동남아 하늘 고른 반도에 이주오던 그날부터 살한으로 백제로 고려로 흐르던 강물, 아름다운 치마자락 태곰고흔 흰 허리들의 즐기가 3·1의 하늘로 솟았다가 또 다시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 솟구쳐 오른 아사달 아사녀의 몸부림 빛나는 앙가슴과 물구비의 찬한한 반항이었다。

—신동엽 「아사녀」 일부—

이상의 시편들은 대부분 4·19직후, 5·16이전에 씌여진것들로서, 혁명의 열기속에서 현장을 즉자적으로 묘사하거나 혁명의 완성을 위한 결격한「전취(戰取)」를 계속하자는 주의주장을 제시하거나, 끌끌내완성될 자유, 민주의 세계를 시적용상의 원리를 통해 보여주거나, 또는 역사인식의 를아래서 4·19의 맥을 탐색하거나 하는 경우들이다。

4.19 자체가 「미완의혁명」으로서 「살아 계속되는 혁명」이라고 할때, 그것은 계속해서 「4.19의 문학화」로 형상화될 것이며 문학 스스로도 「문학의 4.19화」를 계속 수행해 나아갈것이다。

그러나 곧 들이닥친 5·16으로 인해 4·19를 왜곡시키고,부정하는 역사가 현재화되자 「4·19의 문학화」 의 양상은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4·19현장의 수렴적인 동화현상에서 일탈하여 시적자아의 의식이 보다 외향화되고 확대되면서 「계속 진행되어야할 혁명」에의 정열을 외치화하는 경우와,의식이 내향화되어 4·19현장에 대한 「부끄러움」이 주된 정조로 나타나는 경우 등으로 일단 나뉘어 진다。

의식의 외향화의 경우는, 조지훈 (「터져오르는 함성」), 김수영 (「푸른 하늘을」),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을 거쳐 고은 (「들아오라 영혼이여 새로운 영령이여」), 「화살」), 양성우 (「4월희상」), 이시영 (「아, 4월」), 김정환 (「지울 수 없는 노래」), 박몽구(「십자가의 꿈」) 을 비롯, 이종욱, 이동순, 홍일선등 제씨의 시편들에서 상승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민주주의여!
절망하지 말아라
이래로 바위속에 꺼어 화석(化石) 이 필지라도
1960년대의 포악한 정치를
네가 역사 앞에 증거하리라
—조지훈, 「터져오르는 함성」 일부—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고은, 「들아오라…」일부—

한번은 박차고 나아가 맞이해야 할 날
가난하지만 자랑스럽게 우리가 우리 차지해야 할날
크나큰 슬픔의 날 기쁨의 날 벌떨 해방의 날 오리라。
—이시영 「아, 4월」 일부—

대부분이 5·16이후의 역사, 즉 4·19의 부정의 역사에 합거하면서 「새롭게 부활할」,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고야 말」 또는 「부활해야 할」 4·19를 노래하고 있다。

4.19 당시의 자유에의 함성은 문학안에서, 때로는 직설적인 힘으로, 때로는 비유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나타났다

이 시편들이 지향하는 외향화의 중국적인 폭포이자 실천외지— 「미완적 4.19」 의 「완결적 4.19화」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 시들이 심층에 간직하고 있는 핵문은 바로 다름 아닌 「아 찬란은 혁명의 날은 오리라」 (신동엽, 「금강」)의 끝 부분) 였던 것이다。

의식의 내향화의 경우는「부끄러움의 미학」 이다。 반드시 이루어야할 「완결적 4.19」 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바탕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한채 더욱 모순과 비굴으로 빠져들어가는 현실을 개탄하고, 울분을 토로하면서 시인 자신의 존재론적인 부끄러움을 형상화한 시편들에 잘 나타나고 있다。 조태일 (「난들 어쩌란 말이냐」), 신경림 (「4월19일,시골에와서」), 황명걸 (「빈 교정」), 정희성 (「4월에」) 등의 작품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하, 하늘은 저리 긋기만하고
천년이고 만년이고 바다는
파도 하나 못일으킬 징조냐
머문 가슴들은 식어만가느냐
살아남아서 괜히 부끄러워진다
—조태일, 「난들…」 일부—

봄이 와도 우리가 이룬 것은 없고
죽은 자가 또다시 무엇을 이루겠느냐
—정희성, 「4월에」 일부—

어쨌거나 우리 시의 경우는 시적자아를 4·19와 동화시키거나, 외향화 또는 내향화시키면서, 4·19의 본원적인 의미와 인간의 자유에의 의지를 문학적 상상력 내에서 탐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Ⅲ.문학의 4·19화(化):마무리를 대신하여

지난27년동안, 4·19는 자유와 민주, 정의를 추구하고,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시인들에게 사랑받는 테마가 되어왔으며, 또한 역사의 발전법칙과 역사적 이성에대한 신념을 지니게 하는 근거로 기능해왔다。

또한 문학의적인 세계의사실(史實)로서의 4·19는문학내적세계에 영향과 충격을주어, 문학으로 하여금 새로운 자기동일성의 정립을 위한 노력을 하게끔 했다。 즉 4·19를 분기점으로하여 (굳이 4·19를 직접적으로 형상화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문학은 분명히 자기변신의 과정을 겪었던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반일본어 반한문교육세대에서 전국어교육세대로의 교체등 복잡다기한 원인이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 원인과근인에 있어 「4·19가 크게 한몫을 차지한 것은 사실일터이다。

이 때 4.19를 포함한 모든요인들에 의해 문학이 자기변모내지 혁신의 과정을 거친 것, 이것을 본고에서는 「문학의 4.19화 (化)」 라 이름하고, 미흡하나마 그것들을 생각해보는것으로 마무리를 대신할까 한다。

「문학의 4.19화 (化)」 는 우선 김수영이 「우리는 아직도문학 이전에 있다」 고 지적한 바 50년대문학을 극복하고자한때부터 찾아낼 수 있다。 50년대의 전후 문학인들이 상실과 폐허의 거리에서 느낀 것은 자신들이 습득한 앎과한 지식에 대한 허망감과, 자기들이 확고하게 딛을 수 있는 지반의 상실감이었다。

정과리가 지적한대로 이때의 「시는 현실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율적 소우주라는 주입된 관념에 의해, 현대시는 우리의 역사적 현실과는 무관한 또는 그 현실의 토양에서 자란 민요등의 지적 가락과는 연대없는 초현실주의, 상징시론, 엘리어트등 모더니즘으로 통칭되는 서구문학의 사조들을 무분별하게 추종」 하고 있었다。「자유」 라는 구체적 내포 또한 분명한 관념에 의해 주도되어 무국적 (無國籍) 의 이방상태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무국적, 무근거, 무정향에 가까운 모호한 상태에서 문학이 자기 정립의 노력을 한것이 4·19이후 60년대의 일이었으니 본고에서 말하고자하는 「문학의 4·19화(化) 」 의 단초라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실 비판의식과 자유·역사·민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자 했으며 소시민의식의 전개는 물론 민중에 대한 각성과 새로운 인식도 아우르고자 했다。 게다가 문학에의 여러 방법론을 한국적 토양에 맞게 받아들이고 계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60년대, 7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여문학론·농민문학론·민족문학론·제3세계문학론·민중문학론·등으로 분화되어 왔다。

이런 것들은 4·19에 의해 영향받아, 문학 스스로가 4·19에 되돌려주고자 했던 노력의 소산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 즉 「문학의 4·19화 (化) 」 에의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4·자체가 「미완의 혁명」 으로서 「살아 계속되는혁명」 이라고 할때, 그것은 계속해서 「4·19의 문학화」로 형상화될 것이며 「살아 계속되는 4·19」 와 「4·19의 문학화」 가 거듭되는 한, 문학스스로도 「문학의 4·19화 (化) 」 를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기때문이다。

개운한 마음 깨끗한 생활
유한킴벌리

[pǽntilàinərs]

깨끗한 여성을 위한것입니다.

생리가 아닌 때라도 여성에게는 늘 약간의 분비물이 있지요.
그래서 오후만 되면 벌써 팬티가 축축해지고
얼룩도 생겨 기분이 무척 불쾌해지죠.
특히 배란기, 임신전후, 피임제 사용시에는 더욱 심하답니다.
이럴 때 팬티 안쪽에 '후리덤 팬티라이너'를 살짝 붙여두세요.
그리고 하루 서너번만 갈아 주세요.
하루종일 기분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답니다.
깨끗함을 즐기는 여성이라면 다 아는 것, 다 쓰는 것—
분비물을 깨끗이 흡수해 주는 팬티청결대 '후리덤 팬티라이너'랍니다.

후리덤 팬티라이너의 용도
● 평상시, 질분비물을 흡수하여 항상 보송보송한 상쾌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 배란기, 피임제 사용시에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읍니다.
● 여행등 팬티교환이 어려울 경우에 편리합니다.
● 생리직전과 끝날무렵에 사용함으로써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읍니다.

* 표는 미국 킴벌리-크라크의 세계적인 등록상표입니다. * REGD. TRADEMARKS KIMBERLY-CLARK CORP., U.S.A.

4.19혁명의 한계성과 조직운동의 기본원칙

27년전 4월19일 독재종식을 위해 떨쳐일어선 수많은 넋들의 외침이 귓가에 쟁쟁하다. 그러나 5.16쿠데타로 인해 민주화달성의 절실한 과제는 또다른 힘으로 밀어야 만했고, 아직도 미해결된채 우리앞에 던져져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4.19혁명은 곳날, 상황의 명확한 이해, 민중지향적시각, 완결구조적 관점에서 애정어린 냉철한 비판을 받아왔던것이 사실이다. 이글은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조직의 문제를 중심으로, 당시 노정된 즉자적 양태의 지도부, 대중조직의 미비등의 현실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올바른 조직건설을 위한 원칙적과제를 정리해 보는데 의미를두고 작성된다. <편집자주>

Ⅰ 들어가는 말

4·19를 흔히 실패한 혁명 혹은"미완의 혁명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말할것도 없이 기존의 권력을 전복시킨후 새로운 권력 즉 혁명 권력을 창출시키지 못한데서 연유한다. 바로 이것이 4·19가 가져다주는 아쉬움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아쉬움의 문제가 아니다. 대체 권력의 창출은 하룻밤사이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존 권력을 전복시키려는 운동의 과정 속에서 그 운동의 주체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4·19가 실패 또는 미완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미 4·19라는 거대한 대중 운동의 과정 속에 배태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대체 권력의 형성실패인 것이다. (민주당은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고 최소한의 혁명성도 갖지 못했으므로 혁명에 있어서의 대체 권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었다)

Ⅱ 4·19의 한계성과 조직운동적 측면

혁명 운동은 기존 권력을 타도하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시키는 운동이다. 혁명운동이 이렇게 기존 권력과의 정면대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배체제 즉 기존 지배세력의 법체계, 대중통합체계, 대중기만체계의 전면적 부정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변혁의 과정이 평화적인가 폭력적인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각 정치 세력의 역관계에의해 규정될 것이다. 평화적인변혁이라고 하면 현대 세계에 있어서는 대체로 무혈 쿠데타 혹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비록 평화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지배체제의 전면 부정은 어쩔 수 없는 전제이다.

그렇다면 기존지배질서의 전면적 부정과 평화적 수단이라는 두 측면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그럴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몇가지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변혁운동은 대부분의경우 폭력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기존의 지배권력은 부단히 대중을 자기 권력 아래로 통합시키려하고 그를위해 대중기관과 대중회유를 조작하며 최종적으로 법률체계로써 체제이탈을 금지시킨다. 이러한 지배권력을 부정한다는것(말로가아니라 행동으로)은 그자체가 바로 지배권력으로부터 「폭력」으로 규정 당한다.

따라서 혁명운동은 혁명운동측의 입장에서는 부정이고 지배권력의 입장에서는 폭력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필연적이다.

4·19가 가져다준 그못된 풍조 가운데 하나로 혁명의 낭만성을 들 수 있다. 특히 학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그를 대체하려고 하는 변혁운동의 주체는 기존 권력의 지배하에서는 합법적으로 존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되므로 존립 자체가 비합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대중이 인지하지 못하는 비합법, 비공개의변혁운동 주체는 다시 그 자신의 활동의 대중앞에 드러내기위해 온갖 합법적, 공개적 영역을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어야만 한다. 이 두 측면의 상호 작용 일정한 상승효과를 이룰때 변혁운동의 발전이 이루어지는것이고 성공 즉 대체권력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확정지워 나가는 것이다.

Ⅲ 조직운동의 필요성과 비판적 제언

변혁 운동의 성격이 이러한 조직운동이란 우선 대중들이 이미 갖고있는 불만이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전술형태를 고안해내고 그 행동표출의 결과를 조직의 강화로 수렴시키는 것이다. 대중들이 불만을 갖고 있지 않거나 또는 막연한 상태로 갖고 있다고 보고 대중은 운동 주체의 선동에의해 불만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고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이른바 대중을 대상화시키는것이다. 대중들은 분명 자연발생적으로 행동의 분출로 폭발되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운동 주체는 이미 주체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7, 80년대 경험속에서 익히 증명된 바이다. 70년 광주대단지사건, 79년 부마사태, 80년 광주사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중들의 자발적 봉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 아무 준비도 없이 방관만 하고 있던 운동 주체들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보면 80년이후 학생운동의 진행과정이나 일반 사회운동의 진행과정은 확실히 발전된 조직운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체로 투쟁의 형태가 조직운동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고 당면의 정세를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체로 나서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에 비전을 제시해줄 만한 정도의 조직운동적 발전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도 많은것 또한 사실이다.

4·19를 주도한 학생세력의 중심은 학생회였다.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학생회가 운동의 중심에 있을수 있었던것은 집회나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던데 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권력 타도의 자유까지도 보장해줄 권력은 없다. 따라서 일단 권력이 타도되는 순간에 이르러서 학생회는 두가지 선택의길 즉 체제내적 개량의 길로 갈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변신하여 혁명적 지도부의 길로 갈것인가에 놓이게 되었다. 하물며 집회나 시위의자유는 물론 결사의 자유까지 탄압받는 상황 아래에서는 문제가 달라지게 된다.

운동조직은 투쟁과 자기보존이라는 두 명제를 현실 속에서 관철시켜야만 한다. 이 두 명제는 서로 대립되긴 것이 아니라 상호 상승적인 것이다. 결국 이것은 운동 조직체의 위상문제이다. 어떤 운동체가 변혁을 지향하는 한 자신을 현실속에서 정확하게 위치지우는일은 선결과제이다.

역압적 상황에서의 변혁운동 주체는 공개적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반면에 이 비공개 비합법 조직체는 끊임없이 공개 합법 조직들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 (지도력) 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또 하나 조직운동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은 조직의 통제 문제이다.

27년전 4월19일 독재종식을 위해 떨쳐일어선 수많은 넋들의 외침이 귓가에 쟁쟁하다. 그러나 5.16쿠데타로 인해 민주화달성의 절실한 과제는 또다른 힘으로 밀어야 만했고, 아직도 미해결된채 우리앞에 던져져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4·19혁명은 곳날, 상황의 명확한 이해, 민중지향적시각, 완결구조적 관점에서 애정어린 냉철한 비판을 받아왔던것이 사실이다. 이글은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조직의 문제를 중심으로, 당시 노정된 즉자적 양태의 지도부, 대중조직의 미비등의 현실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올바른 조직건설을 위한 원칙적과제를 정리해 보는데 의미를두고 작성된다. <편집자주>

이것은 개인의 자주적, 활동에대한 제약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무원칙하고 무계획한 비조직적 방만성의제어라는 문제이다. 조직운동은 엄격하게 절제된 일사불란함을 가져야한다. 이것은 낭만성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제기된다.

조직운동의 지나친강조가 자칫 대중성의 확보와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대중성의 문제는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것같다.

우선 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지도부와 피지도부 구별에서는 피지도부를 조직내 대중으로부른다. 조직 지도부는 물론 이 조직대중에 대한 지도력을 행사한다. 이것의 바람직한 형태를 흔히 민주적 집중제라고 부른다. 변혁운동은 필연적으로 지배권력으로부터의 탄압을 예정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시의 민주주의를 조직내에서 구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지휘명령체계는 파시스트적 지배질서와 적어도 외형적으로 다를바가 없다. 그래서 조직내 대중의 자발성과 지도부의 지도성을 결합시킨 것이 민주집중제이다.

적어도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이 민주집중제가 변혁운동에있어서 가장 적합한 체제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조직 내 미조직 일반 대중과의 관계는 지도와 피지도의 관계에 있지않다. 적어도 변혁운동이 대체 권력으로서 권력을 장악하기까지는 그렇다. 그 이전에 있어서 조직과 대중과의 관계는 문제 제시 (해결방안 제시) 와 지지, 호응의 관계이다. 따라서 변혁을 지향하는 조직이라면 그누구나 대중으로 부터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려 추구한다.

이러한 경향의 극단적인 추구에 대한 반성이 이른바 대중추종주의 배격이다. 이것은 대중에 대한 영향력은 체제 측이나 반체제 측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고 일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체제 측의 대중 통합력이 반체제 측의 대중적 호응도를 압도하기까지도 하기 때문이다. 즉 대중의 요구 그 자체를 좇아다닌다는 것에는 두가지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위에서 지적한 대로 지배권력의 대중통합력과 대중기만을 고려하지 않고 대중의 요구에 굴종하는 것이다.

나찌 지배하의 독일에서 적어도 숫자로는 다수를 차지하는 대중이 나찌를 열렬히 지지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5·16 직후 박정희 정권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존재했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대중은 이렇게 기만당하기도 하고 부력앞에 쉽게 굴복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대중의 자발성에 대한 굴종을 들 수 있다. 대중은 이미 불만에 가득차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어도 스스로 자주적, 창조적으로 어떤 행동을 표출하리라는 가정은 그 극단으로까지 치달을 때 낙관적 개인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또는 이것을 주체적 유물론이라고도 한다.

운동주체는 이미 존재 또는 잠재하고 있는 대중의 불만이 표출될수 있는 가장 적합한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그러한 일에는 때로는 값비싼 희생이 따를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수 있지만 그러한 전술형태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이 있어야한다. 이러한 성과가 상당한 정도로 축적이 되었을때 대중으로부터 신뢰가 얻어지는 것이고 다소 무리한 방식을 채택해온 대중이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중에 대한 책임성이다. 결과에 대한 책임성만강조하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이고 진정한 운동주체는 운동의 전과정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4·19는 조직운동이라는 관점에서는 대체로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우리에게 던져주었다고 본다. 4·19가 미완의 혁명이라고 함은 바로 4·19가 목표로한 민주주의의 성취, 민족 통일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4월 혁명은 대중 의사의 정확한 수렴 위한 조직적 지도부 창출, 낭만성 극복한 조직운동의 과제 남겨

조직운동의 발전여부는 운동성패의 관건 역동적 실천성과 유리된 대중 추종주의 현실적 대중의식 넘어선 대중관 비판돼야

독자 칼럼

분열된 총학생회, 뼈저린 반성 필요

지난 18일(토) 오후 6시30분경 「전방교육 퇴소 환영식」이 총학생회의 주최로 1천여명의 학생들이 모인가운데 삼민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주최측은 학생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중가요, 개사곡들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런데 행사진행 도중에한 학생이갑자기 연단으로뛰어 들어가더니 마이크를 빼앗으면서 『이런 식으로 밖에 할수 없어』 하며 주최측의 진행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행사장 바깥으로 밀려난 이학생은 학생 대표기구이며 일반학생대중과의 연결고리로서 학내 민주화실현과 대사회 제도순극복이라는 총학생회의 원론적인 역할을 제대로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는 현 총학생회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앞서 전방입소 당일인 지난 13일(월) 환송식행사에서 총학생회는 학생들에게 지도부로서의 한계성, 무기력함 분열된 모습을 여실이 드러내 학생들로부터 빈축을 산적이 있다.

다시말해 작년 해방 성대의 합성과분신투쟁으로 산화해 간 고 (故) 김세진 이재호 학형들의 지난한 전방입소 거부투쟁을 잠식시킬 목적으로 현정부가 지난 2월19일 발표한 전방교육 「선택과목화」에 대해서 파·단대별 토론회들을 통한 전방입소 선택의 본질 파악및 이를 극복하려는 실천의지를 총학생회는 이끌어 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광범위한 요구를 수렴하지 못한채「지도부—대중」이라는 관성적 사고의 틀속에서 성명서나 남독하고 구호몇마디 외치는 것으로 일관하는 타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서 단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비단 이번 전방입소에만 국한된게 아니라 신입생 환영회, 문무대 입·퇴소식, 4·19혁명 기념제등에도 총학생회는 무계획적이고 무원한 방향성없이 실천삼의 오류를 반복해 왔다.

실천속에서 당면의 현실 자체를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이에 근거해 당면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천만이 다음실천을 낳을 수 있고 따라서 지금의 실천없이는 5월의 실천도, 아니 87년의 실천도 나올 수 없음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총학생회는 학생회 내부에 삼존하는 인자간의 사상적 대립으로 인한 통일적 실천력 부재를 말그대로 실천속에서 모색해내고 일반 학생들로부터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뼈저린 자체내 비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 동환 〈법정 정외·2〉

민족·분단사학의 비판과

민중사학론의 진전을 위하여

본고는 현재 우리나라 사학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민족사학과 분단사학에 대한 문제제기의 형태로서 민중사학론을 제시하고자하는 것이다. 시대가 과제를 낳고 또한과제는 실천을 요구한다고 볼때 그실천을 위한 기본적인논의들도 과학적이고 변증법적으로 발전되어야만 한다. 80년도이후 심화된 한반도 모순구조의 타결을 위한 변혁주체의 설정과 그에따른 기본적 인식틀로서 민족사학이나 분단사학은 그 한계가 너무도 뚜렷하다. 민중사학 역시 이론적으로 완결된 논의틀은결코 아니며 단지 문제제기의 수준에 불과할뿐이나 전체변혁운동의 발전을 위한 조그마한 시도로써 「민중사학론의 진전을 위한 소고」를 4·19기념특집으로 싣는다. 아울러 민중사학의 근간이되는 민중론의재검토를 위한 모색도 추후에 게재할 예정이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편집자>

Ⅰ. 머릿말

우리들이 발을 딛고 살아 숨쉬고 있는 1980년대 중반의 이땅 한반도에는 격동이 휘몰아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누적되어온 모순은더욱 심화되고 이 모순을 지양하려는 민중들의 몸부림은 급격히 성장한 형태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상대측의 대응 또한소극적인 방어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 공세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민중들의 편에 서서 과학적 변혁운동이론을 정립하려는 인텔리들의 지적 대결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1970년대말 이후 민중신학, 민중문학, 민중사회학,민중미술,민중미학,민중철학, 민중사학론 등의 제기와 그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한 연구자들의 집단화를 통한 실세화로 나타나고있다。

여기서는 위에서 들은 여러분야 중에서 필자가 주로 역사를 공부하고있는 관계로 민중사학론에 국한해서 그것의 구체화를 위한 단편적인 생각을 제시해 보려 한다。 그런데 민중의 개념에 관한 혼란과 비생산적인 논쟁이 전개되고있는 현상을 안타까와 하면서 필자나름대로 민중의 개념을 간단히 정의하고 이에 입각하여 민중사학론에 접근해보려한다。

Ⅱ. 민중의 개념

민중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누가 민중인가, 고전적인 이론가들이 그것에 관해 말한 바도 없다。 각종사전을 뒤적여도 그것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은 없다。 이는 당연하다。민중이란 용어는 원론에서 개념 규정된 사회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한국적 토양에서 우리들이 창조한 개념이고 다듬어 나가야할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외국어로도정확한 번역이 불가능한 개념이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우리는 민중이란 용어를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중 개념의 이론화 작업의 일환으로 필자가 여기서 논하려 하는것은 민중의 실제 구성 (내용) 이 아니라 민중이란 개념이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가라는 논리구조 (형식·틀) 이다。 민중의 논리틀에관한 최소한의 합의도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중의 실제 구성과 개념에 관하여 아무리 치열한 논쟁을 벌여 보아야 그 논쟁은 같은 제목의 각기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논리틀에 관한 합의의 부재는 기존의 비생산적인 논의틀 속에서 경험주의적이고 비역사적인 머 나아가서는 반동적인 주장들이 활개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 민중이란 어떤 그릇인가。

①민중은 계급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운동적 실천적 개념이다。

②민중은 제모순들의 담지자이며 총체적인 해결자로서 변혁주체이다。

③민중은 계급동맹을 기초로 한 전략적 차원의 통전적 개념이다。

④민중론은 계급론의 세계관에서 출발한다。

위의 각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민중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식을 검토하면서 해보자 (이 부분은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에 싣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민중의 개념틀을 정의한다면 각시대와 발전단계에 따라 민중의 구성내용과 그 구성내에서 지도성을 갖는 헤게모니집단은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특정상황하의 사회를 두고서도 모순구조·시대과제·새로운 사회 등을 각기 달리 설정함에 따라 민중의 구성내용은 달라진다。 같은 혐의 그릇에 다른 내용물이 담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하에서 옳은것은 하나이다。 이제 우리들은 그 내용물 까지도 같아지도록 생산적인 논의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Ⅲ. 민중사학론

1. 민중사학이란 무엇인가 깃발만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구체적 내용과 방법론은 무엇이며 기존의 사학과는 어떻게 다른가 자체의 완결된 이론체계를 갖고있는가 전체 운동에서 어떤 위상이 설정필수있는가。 위 질문들에대해 필자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있지않다。 다만 오늘날 한국에서 한국사학은 이러한 사학이 되어야하고 역사연구자는 이러한 연구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민중사학을 제기해보려한다。

한국사학계는 사론 (사관) 에 관한 논의의 빈곤상을 보이고 있다。 이 빈곤상은 한국사학계의 문제의식과 현실대결의식의 빈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척박한 토양에서 싹튼 사론을 근대 이후를 통틀어 나열한다 하더라도 민족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 신민족주의사학, 분단사학 등이 고작일 것이다。 이 중에서 민중사학과 기본적으로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고 있는 것을 들면 민족사학과 분단사학이다。 민족사학은 당시대의 과제를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이라 설정하고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뒷받침하는 사학인 식민사학을 비판·상쇄과 유치함을 극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돋보인다。 이는 전체 민중운동 발전의 당연한 반영이다。 1920년대 일제식민지하 신채호의민족사학과 1970년대 유신체제하 강만길의 분단사학과 1980년대의 민중사학은 문제의식은 같은 차원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분명히 달라야 하고 발전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민중사학이 특별난 문제의식에 입각해 있는것이 아니라면 구태여 생소한 「민중사학」 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사학 용어를 빌어 사용하면서 그것의 사소한 오류를 시정하고 부족한 내용을 채우는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이러한 주장에도 일단의 타당성이 있긴 하다。 중요한 것은 민중사학이란는 그럴듯한 용어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민중이란 용어가 우리 민중운동의 성과틀이고 민중사학이 민중운동에 동참하는 민중운동의 한 구성부분이는 점에서 또 민족사학이나 분단사학이 각 단계에서 발전적인 사관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잡동사니로 오염되어 있고 해 내야하는 객관적 역사적 과제이다。 그리고 그것의 규명은 민중운동에 동참하는 민중사학자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민중사학은 시대적 과제를 역사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 현재는 과거의 총체적인 지양태이기 때문에 사적분석과 현상분석을 같이하지 않는 사회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질수없다 하겠다。 시대적 과제와 그 과제해결의 주체인 진보적인 세력과 그들의 운동은 역사적 단계에 따라 내용을 달리한다。 그것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왔으며 지금 단계에서 그것들은 어떠한가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민중사학의 시급한 일부이고 민중사학의 또다른 차원의 실천을 매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시대과제 규명을 자기과제로 설정하는것 만으로는 민중사학의 내용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운동이란 자기 운동노선이 올바르다는 것을 골방에 틀어 앉아 고고한 목소리로 논하거나 거리에서 큰목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방향의 역사적 필연도 인간적 실천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과 진보성을 대중들에게 알맞은 수준과 방법으로 이해시키고 대중을 획득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상대측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그로부터 대중을 끌어내어 그를 고립시키고 자기의 정당성을 이해시키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작업은 운동의 기본적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민중사학은 시대적과제를 밝히는 과제외에 또다른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민중사학이 민중운동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방법론은 무엇인가, 역사연구 자체가 어떻게 운동성을 지닐수 있을것인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역사를 해석하고 가르칠 것인가 필자는 이 문제들에 대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우리가 처한 현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성사학계의 보수성과 반동성및 이러한 경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관을 모색하고 있는 자들의 몇가지 편향들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민중사학의 실체를 제시해 보려 한다。

2. 현재 한국사학계는 어느 부분보다도 보수적이다。 그 보수성을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자체 속성(과거사를 다룸, 사료선별의 하중등) 및 그것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체제적 제약 그리고 체제 이데올로기의 수호와 재생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체제에 기생하는 반민중적 사학자들의 존재등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사학계의 보수성을 객관적인 제약에서보다 이 제약을 극복하려는 주체적 노력의 결여를 강조한다。 객관적 제약을 극복하여 기존 한국사학계의 보수성을 불식하고 진보적인 경향의 우위를 확보해내는 것은 민중사학이 발전하는 토양이 되고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현단계 민중사학의 한 주요 과제인 것이다。 그럼 우리가 주체적 노력으로 극복해야할 객관적 제약은 무엇인가。

사실 역사학 만큼 체제적으로 보수성을 강요받는 학문 분야도 없을 것이다。 역사서술은 으레 지배집단의 자기 합리화에 종속되어 왔다。 어떤 지배집단이 등장하면 필연적으로 자기 존재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까운 역사에 관한 정리작업이 시도된다。 고려의 삼국사기 조선의 고려사, 일제의 조선사 등이 그것이고 최근에 정부와 민정당이 중심이되어 추진하고 있는 근·현대사 정리도 그러한 류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최근의 학원사태발생이 8·15 이후의 현대사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데도 그 원인이 잠재해있다고 하면서 문교부 문공부 등의 관계부처와 국사편찬위, 정신문화연구원등을 동원하여 이데올로기 공세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사 서술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하여 분위기를 잡아나가고 작업 추진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있다。한편 계신이 빠른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관측의 종용과 현대사에 관한 대중적 관심에 상술적으로 편승하여 현대사 토론회를 개최하고 야사나 비화 등 흥미 본위의역사를 내면서 역사를 왜곡하고있다。

이러한 관측의 대한민국사 서술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존연구의 양적·질적 미흡함을 이유로 혹은 현대사는 객관적 평가가 판단하는 이유로 혹은 관(官)측이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등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기존의 연구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그리고 현대사라고 해서 체계적인 통사적 서술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다。 또 누구에게나 역사를 서술할 권리는있다。 우리가 우려하는것은 그것이 특정 지배집단의 지배와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 하기위해 역사를 입의로 왜곡할소지가 농후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모든 양심적인 인사들과 함께 관측의 대한민국사 서술의 결과물을 폭로·비판하고 또한 업에 봉사하는 것으로서 말기적 현상의 한 반영이라 한겠다。

우리들은 당시대의 과제 해결을 위해 온 삶으로 투쟁해온 민중들과 그들의 편에 섰 운동집단을 주목하면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라는 식의 비변증법적 논리로서가아니라 각 집단들이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투쟁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실천했던가를 근거로하여 각 집단의 역사적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내어야 한다。 즉 민중사학은 분명히 당파적인 사관에 입각해 있지만 민중들의 투쟁사 만을 일방적으로 강조·미화하거나 어느 집단에 정통성을 부여하는것이 아니라 민중적인 역사관으로 객관적 역사를 조망하는 것이다。 민중사학의 당파성과 현재성은 역사학의 객관성, 과학성과 결코 배치되는것이 아니라 그위에 서있다。

민중사관은 민중을 위한 사관이며 그에 입각한 민중사학은 민중운동에 참여하고 이바지하는 사학。

민족사학은 60년대 식민사관의 극복을 위해 등장한 신채호를 근간으로 하는 사관이며, 70년대의 분단사학은 분단이라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통일민족국가 수립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사관이나 80년대의 과제해결에 있어 주관주의적이고 일면적인 편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하기영어연수에관한 안내

1、연수조건

·연수과목=영어
·연수장소=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연수기간=1987년7월9일-8월24일
·수업시간=주말제외 매일 5시간(주당 24-26시간)
·반 편 성=수업 첫날 영어시험 성적에 따라 외국인 학생들과 동급별 배치
·성적평가=U·C·B에서 종합성적 및 등급부여-본교 및 본인에게 통보

2、경 비

·총 액=$2,920(자비부담)
·신 청 료=$50
·수 업 료=$920
·숙 식 비=$930
·수속관리비=$200
·예 비 비(기숙사)=$20
·여 비(왕복)=$800
①연수생 인원이 최종 확정후 경비 조정가능
②연수 종료후 귀국시 TOUR 경비 별도 책정(약$700)

3、학생선발

·선발대상=본교 대학원 및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소속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지원서 해당란)
·선발인원=30-35명
·지원기간=1987년3월24일-5월9일
·지원서 및 안내서 배부=①각대학원 교학과 ②학생처 장학과 및 옹인캠퍼스 학생과
·지원서접수=①각대학원 교학과 ②학생처 장학과 및 옹인캠퍼스 학생과
·선발절차=1차-소속학과장 및 지도교수 면접후 추천(지원서란 기재) 2차-면접(장소=학생처, 일시=추후 개별 통보)
·최종선발자발표=교내게공고 및 개별통보

4、학점인정

①인정과목 및 학점
·U·C·B에서 연수받은 영어 학점은 본 대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교양선택 제2영어, 교양영어, 또는 자유선택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인정학점은 3학점으로 한다(해외연수 영어)
②인정시기 및 다음학기 수강 신청
·1987학년도 제2학기에 인정한다
·2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서 연수학점을 뺀 나머지 학점 범위내에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단, 수강신청시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학점인정 절차
·본교에서의 학점인정 및 성적부여는 U·C·B에서 평가한 연수학생의 성적 및 등급에 대한 본교 「학점인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이에 대한 총장의 승인에 의한다

5、기타사항

·최종 선발된 학생은 학생처에서 시행하는 8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최종 선발된 학생에 대한 여권 및 비자발급 관계는 학생처에서 일괄 담당한다
·연수를 감당할 수 없거나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총장 재량으로 도중 귀국시킨다

학 생 처 장

민중사학의 문제제기

기존사학계의 보수성과 반민중성은 지배층의 이데올로기 공세의 객관적인 제약과 이의극복을 위한 주체적인 노력의 부족이 그 원인이며 민중사학은 전체 민중운동과 함께 하는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사관으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상과 같은 한국사학계의 보수성 (이데올로기적 폐쇄성, 체제적 제약에 대한 굴종과 무기력, 현실 문제 외면등) 에 대해 자성의 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여전히 그 보수성을 불식하지 못한상태에 있다. 그 단적인 예로 8·15 이후 민족사학에 대한 논의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사학계는 민족사학의 대표자격인 신채호를 들먹이고 그와의 연결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서는 자기 역사연구의 의의를 달리 변호할 수 없는 사관의 빈곤상을 보여주고 있다. 신채호와 그의 사학에관한 수많은 연구들은 각양각색이다. 왜냐하면 자기변호를 위해 신채호의 사학에서 자기 입장과의 유사성만을 단편적으로 찾아내었기 때문이다. 그결과 민족사학이라는 개념도 자의적으로 설정되고 있다. 민족사학을 거론하는 연구자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사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축에 속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민족사학이 가졌던 가장 본질적인 역사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거나 실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민족사학은 시대과제인 민족독립에 기여하는 사학으로서 그것의 가장 중심적인 방법론으로서 식민사학 비판이었다.

이런 점에서 식민사학 비판은 당시로서는 민족사학의 전부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도 한국사 연구자가 민족사학의 한 방법론에 불과한 식민사학 비판에만 머물러 좋을 것인가. 진정으로 민족사학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려하는 자라면 지금 이땅의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방법론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민족사학」 「민중사학」이 무엇이냐고 묻기 이전에 각 시대·단계에서 어떤것이 올바른 사학이냐고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올바른 사학을 준거로 해서 역사적으로 등장한 제(諸)사학을 교육을 통해 통치이데올로기를 교육한다. 이중 국사과목은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민족주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과목이다. 그러나 그 애국심과 민족주체의식이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하면 배타주의적·복고주의·영웅주의적·국가주의적 역사의식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국사연구와 국사교육 풍토를 생각하며 이러한 우려를 뿌리칠수없다.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국사교과시간과 배점의 비중 증대, 대학교양과정과 각종 공다면 민중사학은 자기 방법론과 구체적 실천의 배개고리를을 개발해내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자들은 과학적 역사연구 시각 (사관) 을 강조한다. 이들은 원론을 한국사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한국사의 합법칙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논문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 논문은 엄밀한 실증에 기초한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은 일견 철저해 보이지만 민중사학이 매우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첫째, 그들은 즉어 있는 공식을 도입하여 역사를 설명함뿐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고민하지 않는다.

원론을 역사에 적용하여 주로 논문의 형태로 제시하기만하면 무매개적으로 인간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논문을 발표하는것 이외의것은 연구는 크게 평가받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주제나 시기를 연구주제로 택하느냐의 문제는 자본가는 민중이고 민중 내에서도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집단인 것이다. 다른 한편 그들은 천박한 소재주의적 역사인식에 빠져있다. 민중 (운동) 을 중심소재로 다룬다고 해서 또 민중의 영웅적 투쟁을 부각시킨다고 해서 민중사학이 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어떤 주제와 시기를 연구하느냐는 것은 민중사학에서 중요하다. 가령 반민중적 집단에 의해 민중운동사·현대사가 왜곡되고 북한사가 연구상로설정한다면 민중은 통시대적으로 존재한다.

신채호는 주로 고대사를 다루었지만 고대사가 식민사학에의해 크게 왜곡당했던 상황에서 고대사를 연구대상으로 한것이 식민 사학을 비판하고 민족독립운동에 기여했기 때문에 그의 연구는 크게 평가받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주제나 시기를 연구주제로 택하느냐의 문제는 자본가는 민중이고 민중 내에서도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집단인 것이다. 다른 한편 그들은 천박한 소재주의적 역사인식에 빠져있다. 민중 (운동) 을 중심소재로 다룬다고 해서 또 민중의 영웅적 투쟁을 부각시킨다고 해서 민중사학이 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어떤 주제와 시기를 연구하느냐는 것은 민중사학에서 중요하다. 가령 반민중적 집단에 의해 민중운동사·현대사가 왜곡되고 북한사가 연구상의 제약을 받아 민중운동에 심각한 해독을 끼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제와 시기를 연구함으로써 그 왜곡을 시정하고 제약을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민중운동에 보탬이 된다면 그 연구는 민중사학에서 크게 평가받는다. 즉 현대사를 연구대상으로 택했다는 것 자체로서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하에서 현대사를 연구주제로 택하는 것이 민중운동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 연구는 민중사학에서 의미가 큰 것이다.

그러나 민중의 구성은 역사적으로 달라지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집단도 달라진다. 가령 고전적 부르조아혁명 단계에서 민중운동을 논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것은 연구가 어떻게 민중운동에 기여할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민중사학인가, 우리는 앞에서 민중을 정의하면서 민중이 계급과 같은 차원에서 개념이 정의되어서는 안되지만 민중론은 계급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위에서 있다고 했다. 민중사관을 정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논법을 적용할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 과제의 해결과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전체민중운동과 함께하는 발전적인 민중사학이 제기되어야한다.

민중사학은 역사를 과학적 변혁운동이론에 입각해 분석하고 인간과 역사를 적극적으로 변혁하려는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사관

평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민족사학이라는 이름아래 등장하고 있는 반민중적인 경향들을 또한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이점을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지어 살펴보자. 도대체 우리는 왜 역사(특히 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가.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우리는 사회를 올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추상적으로 답할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의 목적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하는 방향이 올바르지 못한 경우를 흔히 발견한다.

특히 국사연구와 국사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되었을 때 그것이초래한 결과들을 잘 알고 있다. 나찌하의 독일이나 군국주의하의 일본이나 일제 식민지치하의 한국에서 잘 나타난다. 지배계급은 연구자를 포섭하고 매체를 장악하고 또 제도식시험에서의 국사과목 필수화 등의 문제는 현 상황에서는 재검토해보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지배집단의 어떠한 의도성을 구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국사교육이 이루어지고있는 상황에서 지배집단의 비호를 받으며「민족혼」이라는 허물아래 기를 펴고있는 반민중적인 역사이해 방식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는 일제하 식민지시기에 식민사학의 그물을뚫고 민족사학이 등장하여 민족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다.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우리가 민중사학을 주장하게 되는 구체적인 역사적 전거이다. 그럼 민중사학이 갖가지 악조건을 극복하고 어떻게 다수를 획득하고 또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민중사학의 제기가 몇몇양심적인 자들의 자기고백에 그쳐서도 안되고 일시적인 유행이어서도 안된다. 민중사학이 궁극적으로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학이라면 그 실천의 수단이나 방법은 논문생산 외에도 많이 있고 또 개발해내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글이 전문적인 수준에서 쓰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 (교육) 대상에 알맞은 수준으로 그리고 독특한 생활감정에 익숙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 의미를 어느정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역사를전달(교육)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민중사학자는 역사연구자이면서 동시에 역사교육자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교육장과 교육방식을 개발해야하고 교육매체를 확보해야 한다.

물째, 그들의 연구활동은 전체민중운동의 진행과 병도로 진행된다. 책상앞에 앉아서 민중운동에 이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 보기힘들며, 이러한 관점의 사람들은 민중운동의 객관적인 요구에 귀를 귀울이지도 않는다.

그들은 무엇이 자기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과제이고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고 자기 관념속에서 주관적으로 과제를 설정한다. 간단히 말해 이들은 민중운동에 동참하고 기여하는 민중사학자가 아니라 자기성찰과 반성만을 일삼는 비관적 지식인이고 감단주의자이다.

어떤 자들은 민중 (운동) 을 중심으로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하는 것이 민중사학이라 한다.

이들은 민중을 피지배층, 피착취자, 직접생산자 등으로 파악하는 민중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앞서 정의한대로 민중을 변혁주체계급사관과 유물사관이 프로레타리아 (계급) 를 위한 사관이라면 민중사관은 민중을 위한 사관인 것이다. 그리고 민중사관에 입각한 민중사학은 민중운동에 참여하고 이바지하는 사학이다.

끝으로 민중사학의 실천주체에대해 살펴보자. 민중사학운동이 양심적인 역사연구자들의 자기성찰·반성에 그치지 않고 전체 민중운동에 한 부문운동으로서 동참하기위해서는 그 목적과 이론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체 (학문공동체) 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조직적 실천이야말로 민중사학을 가장 결정적으로 규정지어주는 점이다. 더우기 민중사학이 아직 완성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않고 장차 조직적 실천과정에서 그체계화가 이루어져야한다면 이 조직체의 구성과 활동방식은 민중사학을 논의하는데 있어 관건이 될 것이다.

이 조직체는 학연·인연에 따른 편협한 분파조직이 아니라 민중사학을 지향하는 역사 연구자들의 모임으로서 민중사학을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구현하는실천 단위이고 주체이다. 그것이 조직체인 이상 적절한 조직적 편제와 규율이 확보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재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주로 공동연구를 통한 성과물의 제시이다. 그러나 연구를 강조한다고 해서 전체 민중운동의 발전을 위해 부과되는 다양한 과제해결에 앞맞는 다양한 실천방식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적 실천을 위해 주체역량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연구자 대중의 조직화와 전업적인 민중사학자의 육성이 필요하다. 개별화되어 존재하는 역량을 조직적 역량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 역량은 주체적 결단과 조직속에서 훈련과정을통해 민중사학의구현자가 필수있는 가장 크고 가능성있는 보고이다. 우리는 삶의 형식이 민중사학을 논하는데 중요해서는 안된다는점을 분명히 인식하지만 민중사학의 추진 주체를 확보하고 단초적인 실천을 모색해가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있는 현단계에서 삶의형식이 주는 규정성을 냉정하게 인식하지 않을수없다.

그럼 잠재적이고 어쩌 보면 주변적인 역량들을 어떻게 민중사학의 구현자로서 그리고 구현조직체로서 만들어낼수 있을것인가. 그 역량들이 당장 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될 수있는것은 아니다.

명분이나 당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소부르조아적 속성을 지닌 연구자들 (집단) 의 민중적 실천을 가능하게 할수있는 것은 아니다.

전업적인 민중사학자의 외식적인 참여은 민중사학의 실체를 만들어나가고 구체화시켜야 하는 현단계에있어서 매우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현신적인 실천 모습들은 일반 연구자 대중의 민중사학에로의 부신과 민중사학자로의 전진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앞으로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생겨난 여러 분야의 조직체들과 기왕의 시행착오와 성과들이 공유되어야 할것이다.

Ⅳ. 맺음말

필자는 이글을 쓰면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인 질문을 다시 금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 이땅에서 자신이 민중이 되고 민중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가장 올바른 삶은 어떤 것인가. 한 개인으로서 어떤 삶이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당착에 빠져서는 안된다.

민중의 승리를위해투쟁하는 사학이민중사학이고 민중사학을 가슴깊이 체화하고자하는주체들의 지속적인 확산은 필곡의 고통을 겪고있는 현사회의 감고한 추동력으로 작용할것이 틀림없다.

이 글에서 필자나름대로 민중사학의 역사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으나 미진한 점이 많았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좀 더 정리한 자기논리를 가진 민중사학론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인텔리들의 시대적 고민은 역사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있어왔지만 현재의 그것은 질적·양적으로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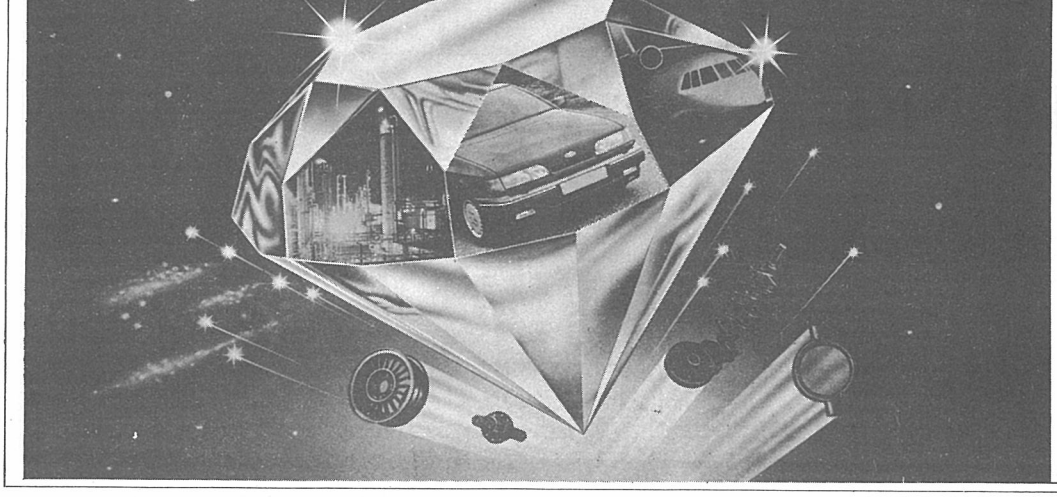
현재의 그것은 매우 광범위하고 뿌렸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일환으로 같은 고민을가진 한국사 연구자들은 다양한 성격과 수준의 집단들을 형성하고 고민을 나누며 조그만 실천들을 모색하고 있다. 그 집단적인 실천들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민중사학은 자기 모습을 보다 명확히 찾아갈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민중사학이 존립하는 근거자체가 한 사회의 역동적 역할을 담당하는 민중들 자신을 기반으로 함으로써만이 성립될 수 있다는데 있다. 이것이 또한 여러 사이비사학, 현실과 동떨진 기계적 학문으로서의 사학이 갖지못한 중차대한 사실이라는 점을 엄두해두어야 한다.

민중사학이 안고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좀더 객관타당한 관점에서 현실을 반영코자하는 노력들이 경주될 때라야만이 비로소 완결적 의미를 띨 수 있으리라 믿는다. 민중적 시각과일장에서 사고하고 평가해내려는 간단없는 고민이 계속되갈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뿐이다.

임 대 식
〈서울대대학원
국사학과석사과정〉

철의보석-三美특수강
자동차부품에서 원자로까지 — 신소재·신기술로 미래에 도전하고 있읍니다.



특수강의 세계적 메이커—삼미종합특수강
「철의 보석」이라 불리는 특수강을 생산하는 삼미특수강이 하는 일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규모의 특수강 제조메이커 이면서도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기간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용 기초소재, 전략소재 생산에만 주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철강 선진국도 인정하는 삼미의 특수강 기술
「산업을 튼튼히, 사회를 튼튼히」라는 이념으로 오로지 특수강 분야에만 매진해온 삼미 특수강은 KS, 서독TÜV, 일본JIS, 노르웨이DNV, 등의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읍니다.
미국, 서독, 영국 등 선진공업국에 매년 1억달라 이상의 특수강소재를 수출하는 삼미 특수강의 저력—그것은 축적된 노우하우와 300여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중앙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의 결과입니다. 제강기술의 국내정착, 생산성 제고와 공정합리화로 삼미 특수강은 원가절감,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철강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미래의 산업사회를 이끌어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읍니다.
'90년까지 연생산 100만톤 달성, 질적·양적인면에서 특수강 소재의 100% 국산공급을 실현하여 가고 있는 삼미 특수강은 오늘도 미래의 산업사회를 이끌어갈 첨단소재생산, 신소재개발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읍니다.
또한 1987년 3월에 기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 하는 삼미 특수강—철강한국의 힘찬건설을 위해 계속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삼미 특수강이 쓰이는 산업분야
● 특수강봉재 : 각종 자동, 자동차, 항공기엔진, 전기전자기기, 발전설비, 원자력산업장비 등의 중강력볼스크 볼트·너트, 베어링, 공구, 금형용 소재
●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 건축 내외장재, 자동차부품 및 외장재, 주방용품, 의료기 위생배관재료, 각종 화학용기, 의료설비, 각종 레저시설용 소재 등
● 두개목강판 : 정유·화학공업설비, 식품가공설비, 고압배관설비, 원자력발전설비 소재 등으로 1986년 현재 1천3000여 공종을 개발.
● 특수금속 및 특수합금 : 항공, 원자력, 특수산업 등을 위한 각종 고온 고강도·내식재료, 전자·화학산업의 특수소재.
● 개발중인 미래의 소재 : 경량합·고급합에 따른 자동차소재, 고광택 스테인레스 강판 등 건설 및 건축용자수소재, 농업 및 기기자의 전기·전자산업소재 각종 원자력발전용 소재, 첨단의 위생 및 전재재료용 소재.

산업사회를 튼튼하게 가꿔가는
三美綜合特殊鋼株式會社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935-34 TEL.583-6911, 584-6911

—외대종합대승격후 7년을 돌아본다

현실화 돼야할 마스터플랜

◇찬란한 2천년대를 약속하는 장미빛 꿈은 우리의 가슴속에 안타까움으로만 남아있다

외대 장기발전 계획실현은 마스터플랜 구체화와 공개, 학생들의 지속적 관심속에서가능

본교는 올해로 개교33주년과 더불어 전기종합대의 7년째가 되었다。종로의 영보빌딩 가교사에서 5개과로 출발하여80년의 종합대학화와 전기입시제가 되며 용인캠퍼스의 설립등으로 현재 2개의 캠퍼스에 입만이천명이 넘는 학생을 수용한 명실상부한 거대한 종합대학이 되었다。이에 4월20일 개교기념일을 계기로 이처럼 양적팽창이 가속화된 종합화 이후의 7년, 계속적인 학교발전의 도상에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80년10월의 종합대학승격이전에 설립허가를 받게된용인캠퍼스의 태동을 살펴보자。

용인캠퍼스는 정부의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소재대학의 지방분교 설립을 권장함때인 79년9월「한국외국어 대학 용인분교」로 설립허가를 받고 80년7월 캠퍼스 건설에 착공하였다。

그러던 중 80년10월 종합대학으로 승격이되자「용인분교」에서 용인대학체제로 정비가 되었으며 12월에「한국외국어대학교 장기발전계획」즉 대규모 종합대학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그 계획은 용인캠퍼스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계획이 끝나는 2천년대에는 80만평의 대지위에 70여개의 건물이 들어서고 10개의 단과대학에 3만명의 학부생과 6개의 대학원에 6천명의 학생을 수용할 대규모 캠퍼스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계획안(案)은 81년의「외대일람」을 보면 알수있는데 그내용은 1984년까지 문리과대학에 이문캠퍼스의 철학과와함께 사회학과 역사학과를 신설하고 상경대, 법정대 등은 사회적 요구에따라 법과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으로 개편한다。또한 공대를 2차5개년기간 (85~90)중에, 예체능,의학계를 4차5개년계획기간 (95~2000년)에 용인에신설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인캠퍼스는 이와 같은 발전계획안대로 순탄하게 제 길을 걸어가지 못하였다。강와동의 미완성으로「용인대학」의 형태로 81년1학기까지 이문캠퍼스에서 수업을 받는데서부터 문제의 불씨는 계속 잔존하였다。

1년6개월동안 느껴야했던 이문캠퍼스학생들과의 미묘한 갈등에서 갑자기 옮긴 용인캠퍼스의 교통문제등이 학생들의 주요관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82년10월「용인대학」을 용인캠퍼스로 전제 조정인가를 받아 외국어학부및 상경학부를 각각 어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으로 개편하였는데, 이것또한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졸업후 취직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어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으로의 개편을 거부하며 그 이듯이 실제로 기숙사가 완공하여 입주가가능하게 된 것은 85학년도 부터이고 사회과학대학의 과증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또한 외대종합화의 일환으로 81년 신설된 문리대의 경우는 학교측의 불분명한 행정관리등으로 소속캠퍼스에대한 공감대형성에 악영향을 많이 주었고, 특히 철학과같은 경우는 행정부재나 마스터플랜의 허실을 전처럼 동서양어대나 상경대 명외에 수업만 제2캠퍼스 (용인캠퍼스) 에서 받는 형식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주장은 한학과내에 동일한이름의 같은과가 두개 존재할수 없다는등의 명목으로 묵살되었다。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하고 깨끗한 해결을 보지못한채 다음해로 이월되고 즉흥적으로 처리되는 상태였기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81년 11월에 학생들과 총장과의 대화에서 불편한 용인캠퍼스의 교통문제와 대학촌부재의 현실을 빨리 타개하기 위하여 기숙사건립을 83년입주가능하도록 82년중에 완공하기로약속하였다。또한 동년의 외대안내를 보면 84년부터 사회과학대학에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홍보학과 사회학과 경영학과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였다。그러나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보면 알 수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담초 문리대는 인문대와 이공대로 분리시켜 육성 할 방침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공대는 용인캠퍼스에 전자공학과 환경공학과등을 포함하여 기존의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전산학과등으로 용인에 설치하고, 인문대는 기존의 철학과, 사학과에 사회학과, 심리학과, 언어학과등을 포함하여 설치한다음 89년까지 이문캠퍼스에서 육성한뒤 이전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신설과를 더이상 개설하기가 어려워지고 단대분리도 힘들게되자, 결국 철학과는 현재의 문리대 체제로 합치되기로 하고 87학년부터는 용인캠퍼스에서 선발해 수업을 받도록 하게되었다。여기에서도 진통이 없을수 없었다。

철학과에서는 2,3,4 학년은 이문캠퍼스에서 수업을받고 1학년은 용인캠퍼스에서 수업을 받는 이와같은 체제에서는 학업을 제대로 할수 없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와 농성을 벌이기도 했으나 결국 올해 87학번들은 용인캠퍼스에서 선발해 수업을 받게 되었다。

외대의 장기발전계획에 의해 이문캠퍼스에서 이전된 첫번째 혜택인 문리대는 이처럼 학적의 불분명, 소속 캠퍼스의 불분명, 마스터플랜의 변경등으로 불완전한 이전을 하여 앞으로도 계속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로 남게되어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용인캠퍼스 설립후 학기초마다 계속적인 학생들의 시위·학의 농성으로 하나씩 해결점을 찾으려 해왔다。그와같은 형태의 치열하고 대표적인 것으로 85년의 학내 시위·농성을 살펴볼수 있을것이다。

85년5월14일에 시작된 이시위·농성은 학내문제와 관련하여 중앙도서관·학생회관·노천극장설립등의 제반문제들이 재단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고「재단공개」와「학적문제해결」을 위한「마스터플랜의 구체화」를 내걸고 총학생회와 각 어문대·사회대의 과회장단이 농성을 시작하였다。또한 문리대에선도 특작적으로「재단 전면공개」등을 요구하며 학생회 간부들의 단식농성이 시작되었다。이렇게 시작된 농성은 학교측의 무성의한 답변등으로 점점 가열화되어 전면적인 수업거부의 형태로 발전하며, 총장·이사장실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하는등 극한적인 투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에 학교측도 총·부학생회장을 포함 8명제적이라는 초유의 극한적 방법으로 대처하였다。이런 학교측의 대응방향과「마스터 플랜 실현의지」만의 재천명과「징계철회 없다」는 등의 무성의하고 아집적인 답변을 들은후 학생들은 농성장소를 서울캠퍼스로 옮겨「부당징계 철회」,「부실재단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6월18일 총장실·학생처등의 기물을 부순뒤 6월21일 다가오는 발학과 장기적인 농성으로 인한 졸가학생수의 감소등으로 빨다른 해결점을 찾지못한채 해산하게 되었다。그뒤 학교당국에서는 7월1일자로 2차징계를 내려 12명에게 유기정학처분을 하였다。

85년의 이 농성 시위는 전까지의 국부적인 문제제기에서「재단공개」내지「부실재단의 퇴진」이라는 압록적인 급기사항을 과감히 파헤치려는 시도로 그의의를 찾을수 있겠다。이럼시도에 학교·재단은 미온적이고 불확실한 2차 증기계획 (1995~89) 의 발표로 밖에 해명하지 못하고 학내문제로인한 농성·시위에 사상초유의 중징계로 대처하여 마스터플랜과 재단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만 남겨준채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처럼 총20명에 대한 유례없는 중징계와 38일간의 극한적인 장기농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해결책없이 계속적인 불씨를 남긴채 일단락되었다。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앙금은 용인 캠퍼스 학생들 모두에게 공통으로 남아있으며 언제고 다시금 폭발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다。

외대의 종합화와 장기개발계획이 성립된지 7년동안 누적된 문제들은 단시간에, 학생들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어질 성질의것이 아니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이런 문제들은 학교, 재단의 성의있는 노력들만이 해결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학교측은 학생들이 공감할수 있는 현실적인 마스터 플랜의 구체화 작업과 함께 대학의 전구성원이 참가할수 있는「토론회」등을 마련하여 현학교의 처지와 장기종합발전계획등에 직접한 논의를 할수 있어야 할것이다。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 그동안 누적되어온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배일속에서 계속 가려져 있던「마스터플랜」의 공개화가 이루어져야 서로간의불신감이 해소되고 학생과 학교가 협력하여「2천년의 외대」를 가꾸어 나갈수 있는 동토가 마련될 것이다。

<홍창형기자>

◇85년, 이문캠퍼스로 올라와 농성을 하던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하고있다

외대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원로교수에게 듣는다

개교33주년 특집인터뷰

노동선 교수 (중국어과·1회 졸업) —현 동양어대 학장

문화는 단층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옛것을 계승하여 진취적인 내일을 열어나가려는 의지가 중요해

—본교 개교 33주년을 맞이하여 설립시부터 학생과 교수로서 본교에 몸담아 오신 선생님을 찾아 그동안의 외대 변천모습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들어보려합니다。

▲노동 : 학칙 제1조의 내용을 보면「외국어문, 외국문물및 국제사정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와 세계정세파악에 기여할 지도적 인물을 양성함에 본교의 목적이있다」라고 설명돼 있읍니다。내가할 수있는얘기가 그 뒤쥘에 한마디로축약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교가 이러한 수준까지 도달 했느냐하는 점은 회의적이며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다면「외대인」이라는 자부심은 어떻게 발현되며 어디서 비롯돼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 : 33년의 역사가 사실 오랜 역사를지닌 타대학과 비교 해보면 일천하다고 볼수있읍니다。그만큼 역사가 짧다는 얘기지요。그러나 우리 자신의 혼을 망각하고 자신을 경시하는 일이 많은데 실상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자기자신을존중함을 알아야 합니다。다시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자존심이라고 할수 있읍니다。

—외대인의 긍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반성해야될점에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노동 : 비록 짧은 전통이지만 33년이 된 오늘에있어 잘못돼가고 있는 점이 많다고 봅니니다。옛말에 보면「형만한 아우없고 아버지만한 아들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요지는 형과아우의 능력 차이를 말한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형은 아우를 위해서 희생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학생들이 옛날 우리때보다 똑똑한 것은 사실이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열심히 안타깝게 뭔가 하려는 의지가 안보인다는 것입니다。나는 막상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이 주려는 마음이 충만한데 학생들은 마치 공부도 남을 위해서 하는양 눈빛이 흐리고 어릴때면 남의 공부를 대신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학생들에게 뭔가 질문을 해도 대답을 못하고 머구나 자신이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기류가 그렇다면 문제가 많겠군요。그럼 초창기의 선배들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 : 그때의 사람들은 참 긍지를가지고 임했다고 생각합니다。그당시에 러시아나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의심에 찬 눈길을 받았읍니다。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이 맡은 전공에 대해서 선택되어졌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요。한세대가 지난 이 마당에서도 동참들을 가만히 보면 아무 희망도 없던 캄캄한 밤중에 선택해 할수있는 한까지 노력해 보자는 의지가 충만해있었읍니다。지금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댓가를 충분히 받았다고 자부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5개과와 150여명이 영보빌딩에서 개교하던 54년 당시 얘기좀 해주십시오。

▲노동 : 우리는 YMCA 건너편 영보빌딩위 옥상에서 입학식을 했고, 운동장이 없어서 남산에올라가서 체육을 했답니다。게단폭대기까지 올라가서팔굽혀펴기를하면학점을받곤했읍니다。어려운시절이었지만우리는 모두가 희망차있었답니다。

—57년에 이문동에 왔을때 첫출발은 어떻는지요。

▲노동 : 지 활무같은 이문동이었지만,그때도 우리집에왔다는 벅찬가슴에서 제대로 공부도 못했읍니다。미네르바에는 항상 정신이상자 (?) 들이 와서 서반아어 중국어등으로 연극대사나 대화체를 알기하고 상 옛것을 계승하고, 이것을 보다 진취적으로 미래와 현재에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즉, 과거를 잊는다는것은 미래를 열기위한 전제이며 옛것을 익히는 것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새로운 지식을 알기위한 기본토대가 돼야한다는 것이지요。

—최근 전반적으로대학내에서 점점 덜어지는듯한 교수와 학생사이의 문제는 본교도 예외는 아닌듯한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동 : 교수와 학생간의 친목은 맹목적이어서는 안되고 학문적 교류가 전제가돼야 오래가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사실 산업화된 사회속에서 교육마저 상품화되었으며 학과마다 지도 교수의 면담도 제대로 안되는 현실을 볼때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옛날 도제교육때와 같을 수는 없겠지요。

—교수와 학생간에평배해있는 이, 어학전공자들은 어학 법주에 시각이 집중되어 역사의 흐름과 사회발전양상에 무감각해지기 쉬운 것과 단조로와지기 쉬운 단점이 있다고 할수있죠

—그럼다면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동 : 그나라 언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라 정치나 사회전반을 학습한다면 직접자료를 통해 연구할수 있으므로 남보다 더 일찍 지식을 습득할수 있겠지요。그러므로 어학은 실제 목적이 아니라 방편이돼야하며, 수단으로 할때 유리한 면이 많으며, 본교생의 어학토대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학에서 그친다면 경박하고 천박스러울 뿐이며 이를 토대로 학문을 심화시킬때 본교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수있읍니다。

—개교 33주년을 맞아 외대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노동 : 초창기에 쏟았던 열정과 실력배양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지금, 뛰늦게나마 반성을해 실력을 끌어 올릴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그러나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아직까지 우리외대인 모두가 해야할 일이 너무많다는 점을 명심하자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수진기자>

외대만평

민 주

민주양분으로 다시살아날 4·19여 !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1 2 3
4 5 6
7 8 9
* 0 #

아무리 급해도
버튼을 한꺼번에 누를 수는 없읍니다.
정확한 순서에 따라
버튼을 차근차근 눌렀을 때,
비로소 원하는 한 통화의 전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초와 질서를 무시한 채
과정보다는 결과를
알맹이보다는 포양을 앞세우며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는
새치기, 졸속, 날림 등의 풍조들—
그것은 언제부턴가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 바빠진
우리네 생활풍토 때문이기도 합니다.

쌍용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모양보다는 알맹이를 생각하며
결코 서두르는 일 없이
기업의 정도를 걸어 갈 것입니다.

SSANG YONG 쌍용

타오르는 4·19정신 계화하지 못한 「4·19혁명계승주간」

4·19혁명 계승 주간인 4월6일 (월) 부터 17일 (금) 까지 서울·용인 양캠퍼스에서 열린 제반행사가 침체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캠퍼스에서는 계승주간에 분향소 설치및 추모제 상황극 자료집발간 공개토론회 기념시 판화전시회등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예정에비해 일정이 연기되고 무산되는등 구체적으로 치뤄진 행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치뤄진 행사라고 할지라도 내용성이 부족하고 기간중에 계속 되지 못해 4.19계승의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총학생회 학술부주최「4·19혁명의 배경과 현재적 의미」라는 내용의 자료집 발간도 무산돼 큰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는데 이는 기획도중에 총학생회및 각단대 학술부장의 준비작업인 세미나등 회의가 진척되지못하는등 담당자의 나태한 자세에서 비롯됐다고 하겠다.

또한 4·19추모제 역시 집행부차원의 회의의결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전방퇴소식과 함께 산만한 가운데 산발적으로 진행된 점으로 보아 총학생회의 행사추진력및 학생들이 이에 부응하려는 노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없다.

왔다는 점에서 학생대중의 열기를 고도로 끌어 올릴수 있는 계기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주최측및 입원진의 자기헌신적인 자세부족과 불성실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실제로 그기간동안의 약속한 행사도 각단대에서 개별적으로 준비했을 뿐 총학생회 주최의 포괄적인 전체행사는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학생대중들의 총학생회에 대한 함의및 문제제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앞서 말한 분위기성숙에 견이 마련되지 못해 학생대중에게 4·19혁명의 역사성에 관한 내용전달조차 올바로 이

는 지난해부터 학내운동체내부에 누차 지적되어온 사상논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고있는사상논의에대한 재검토및 비판이 더욱 요청되며 총학생회가 타단체와 다를바없이 이에 매몰되어 오히려 이러한 양상을 지속시키는 여기능을보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이다.

실제로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내 각 단체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대중사업을 방기하는 것은 총학생회에 민주적인 자세가 부족함에서 비롯된다. 또한, 집행부 전체의 외견학일점이 없이 소수 몇몇의 개별적 성향이 총학생회

총학의 안일한 자세로 4·19의미및 학생대중의 열기를 수렴못해

이번행사를 토대로 총학의 선도성에 대한 재검토시급

서양어대에서 주최한 사진·판화및 기념시전시회의 경우 전시장소를 기존전시회장으로 하지 않고 도서관앞 대자보로 함에 따라 16일 (목) 부터 학내 집회관계로 철수시켰던것이다. 따라서 실제기간을 다채우지 못했으며 대자보의 공간협소로 인해 내용성을 채우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무성의한 행사였다는 지적을 할수 있다.

사실상 학생들이 쉽게 접할수 있으며 홍보작업이 가장 용이한 곳이 바로 대자보라고 는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마련해 캠퍼스 곳곳을 적절히

한편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의 경우 4월6일부터 10일까지경기지역9개대 공동합의로 인해 「인권주간및 4.19계승주간」으로서 진행된 행사를 보련상계동 철거민 비대오상엽 문화패초청공연 「고문」상황극고문사진전시회 4.19혁명계승 실포지움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실제 진행된 행사가 대부분 인권주간에 맞춰지는 것이었으며 사실상 4.19관련행사는 연기되거나 아니면 무산된 형편이었다.

이러한 측면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총학생회가 실질적으로 4.19등의 행사를 추진하지 않

무어지지 않았다. 즉 총학생회가 행사주진에 있어 대중사업을 간과하고 있으며 단대별 사도 책임성을 갖고 뒷받침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활발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할수 있겠다.

사실상 4·19기간중 행사의 주체인 2학년학생들의 전방입소가 겹치면서 사기가 원활히 진행되기에 난점이있는것은 사실이나 예년에도 동일한 상황에서 4·19행사가 진행되었던 점에 비해 볼때 이번행사가 부실했던 이유는 주최측의 무사안일적인 자세에있다고 하겠다.

앞서말한 행사의 부진문제 전체를 좌우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로서 총학생회는 출범 당시의 공개원칙등 공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년에 누차 지적되어온 학생대중과의 괴리감을 더욱 가중시키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4·19행사등 시기적인 상황및 계기를 적절히 대처하여 대중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요청될 뿐만아니라 이를계기로 하여 총학생회의 자체비판과 함께 현실적인 인식에근거한 내적 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기획부>

용인캠퍼스 휴식공간 제기능 못해

학교측의 계획성있고 내실있는 시설확충이 뒤따라야

본교 용인캠퍼스에 마련되어 있는 휴식공간이 학생들의 편의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늘어나는 학생수에비해 크게 부족한 휴게실은 각 단대별로 하나정도 마련되어 있는 실정인데, 어문대내의 휴게실등 대부분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몇개의 테이블만이 설치되어 있는등 내부시설이 극히 미비하다.

또한 85년 2학기에 교양관 휴게실의 절반이 교수식당화된 후 어문대 식당내에 다방을 설치했으나 어문대 식당과함께 사용돼 더욱혼잡을 빚고있다.

뿐만아니라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 휴게실중 차양시설이 설치된곳은 오직 어문대 여학생 휴게실 뿐이라 이용에 불편이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캠퍼스의 휴식공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옥외 휴게실은 군데군데 벤취만이 놓여 있는 형편이고 주변 환경에 보완이 이루어지지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용인캠퍼스주변에 문화공간이나 휴식공간이 거의 없는 현 실정을 감안해 볼때 캠퍼스내 자체휴식공간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할수 있다.

이에대해 김모군 (어문·독어3) 은 『예산에 무리가 따르지 않고도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있는 학교측의 짜임새있는 계획안이 우선 필요하다』 면서 『여기에 학생들의 캠퍼스에 대한 애교심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때에 비로소 왕산은 살아있는 캠퍼스가 될것』 이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용인 총학생회 모 간부는 현재 어문대 앞 부근에 노천극장을 계획중으로 이에대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교양관 휴게실의 문화시설, 공개 입찰을 통한 간이매점의 건설등을 학교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세부 계획안을 밝혔다.

최근 문리대 휴게실의 경우는, 학생들의 이러한 요청으로 오더오시설을 확충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교측 관계자는 용인캠퍼스 각지의 휴게실의 미비한 내부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학생들의 사용 방법과 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공간 증설 계획은 학생회관 완공후에 고려해볼 문제라고 밝히고있다.

그러나 학교의 시설이 대학의 주체인 학생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확충의 회피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증설한 휴식공간의 점차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도 이점을인식하면서 휴식공간의 활용방법 역시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상미기자>

이 사람

강 명 아

<4·19기념 서사극을 공연하며>

『4·19혁명의 관계자료를 통해 그당시를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점차 학생들에게 멀리 멀어져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4·19정신을 기리고 되새기려 했읍니다』

지난 4월13일(월)부터 17일(금)까지의 4·19계승주간 행사일정중 마지막날 삼민광장에서 했던「접동새 울음속에 핀 진달래」이란 제목의 서사극에 출연했던 강명아양 (서양·서어2)이 4·19를 다룬 이번 촌극에서 의도했던 바를 밝힌다.

올해 4·19계승 주간에 벌어졌던 행사가 작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부족했던 이유로서 『총학생회의 총체적인 사업이 내부문제로 인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데 있다』 는강양은 『서사극에서 예년처럼 문화패의 여러 행사속에서 분위기가고조된 가운데 진행되지 않고 덩그러니 개최돼 내용전달이 부족했다』 고 덧붙인다.

4·19당시 상황을 재현하면서 느낀점에 대해 묻자 강양은 『실제 4·19의 외미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연기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가슴에 새기고 체화한뒤 연기를 하지 못해 안타까왔다』 고 밝혔다.

그래도 역을 맡으면서도 4·19혁명의 역사적 위치를 가슴에 되새겨 보았다는 강양은 『미완의 혁명이었지만, 그 자체에서만 돌덜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속에서 이해하여 현재까지 연결시킬때 비로소 제외미가 발현될수 있다』 고 말한다.

서사극 귀절중 『형등 없는 지식인을 배격한다』 는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는 강양은 『이는 4·19혁명의 주역들이 지금은 변절돼 있을을 비판한 귀절이라서 잊지 않고 있다』 며 『운동적 관점에서 철저히 배격해야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 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4·19당시 2백여명의 젊은이가 쓰러져 갔는데, 이를 감정적으로만 느끼게 될때는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게 되므로,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그 사실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역사적인 인식을 해야한다』 며 강양은 27년째 맞는 4·19를 지내면서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자못 아쉬워한다. <수>

움직임

〈서울캠퍼스〉

▲고려동문회 : 21일 (화) 오후 4시50분 시계탑 회비 4천원.

▲총무고등문회및 전방퇴소 환영식 : 21일(화) 오후 5시 시계탑 회비 3천원.

〈용인캠퍼스〉

▲열광여고 : 4월21일(화)오후 5시30분 어문대나방

▲장심 (남·녀)고 : 21일(화) 오후 5시30분 민주광장

▲수도여고 : 22일(수)오후 5시30분 어문대식당앞 등나무

〈상영안내〉

◇서울캠퍼스

—시청각비데오룸 (2309호)

▲4월21일 (화) : 오후 2시30분 「상속자」 5시 「금지된장난」 ▲22일 (수) : 오후 2시30분 「나의 청춘 마리안느」 5시 「Z」 ▲23일 (목) : 오후 2시30분 「암흑가의 최후」 5시 「Hanna K」 ▲24일 (금) : 오후2시30분 「파리는 안개에 젖어」 5시 「밤의 열기」 ▲27일 (월) : 오후 2시30분 「금지된장난」 5시 「400번의 구타」 ▲28일(화) : 오후 2시30분 「Hanna K」 5시 「상속자」 ▲29일 (수) : 오후 2시30분 「암흑가의 최후」 5시 「Blue Love」 ▲30일 (목) : 오후 2시30분 「욕망의 삐에로」 5시 「공포의 보수」 ▲5월1일 (금) : 오후 2시30분 「남과여」 5시 「Z」

◇용인캠퍼스

—어문대 영사실 (1412호)

오후 1시30분. ※4월21일(화)~5월1일 (금) 까지 휴관—

▲5월4일 (월) : 「암흑가의 최후」 ▲6일 (수) : 「4백번의 구타」 ▲7일 (목) : 「남과여」 ▲8일 (금) : 「파리는 안개에 젖어」 ▲11일 (월) : 「셀부르의우산」 ▲12일 (화) : 「나의청춘 마리안느」 ▲13일 (수) : 「Blue Love」 ▲14일 (목) : 「missing」 ▲15일 (금) : 「앨리스」 ▲18일·(월) : 「밤의열기」

멜라노비치교수 초청강연

어문대학 교학과 주최 초청강연회가 지난 4월17일(금)오후2시 교양학관 201호에서 1백50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플란드 바르샤바 대학의 미코와이 멜라노비치(동양학 부장) 교수의 「동구에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 이라는 주제로 있었다.

정병권 (플란드어)교수의 통역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회에서 멜라노 비치 교수는 『동구에서의 한국관은 한국전쟁, 남북한의 경제경쟁, 올림픽 개최로 인한 남·북문제등 극히 피상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을뿐, 역사문화적인 면에서는 거의 전무한 형편』 이라고 전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플란드의 조선어학과 학생들과 서신교환이 이루어져야 양국간의 정보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참석했던 경희대 방권(불문학)교수는 본교에 플란드 학술관계 서적 1백여권을 기증하기도 했다.

농촌컵보내기 용인총학생회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농촌에 종이컵보내기 운동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은 지난 85년 우종주 (사회·경제4) 군이 개인적으로 시작한 것을 계기로 총학생회에서 여름방학때 농촌활동을할 장소에 보내기 위해 계속되어왔다. 총학생회의 한 일원은 『불철 농촌에서 모종시 필요한 컵을 보내 일손을 돕기 위함』 이라고 이 운동의 목적을 밝혔다.

현재 사회때 휴게실과 어문대 다방에 종이컵 모으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미 라면 10박스 이상의 분량의 종이컵을 농촌에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동문회장단 모임

복지위원회 주최

본교에 재학중인 고교동문회장단 모임이 4월22일 (수) 오후5시 총학생회실에서 열린다.

총학생회 산하 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모임에 대해 서지석 (서양·영어전적) 복지위원장은 『학생들의 결속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폐지되었던 본교동문회장단 모임을 부활하는 것인데, 각고교동문회의 활성화, 경제적 지원 및 복지장학금추천권 부여를 고려중』 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이번 모임은 각고교 동문회장 뿐만 아니라 각지방 향우회장도 참석할 수 있다.

송재훈 개인전 사진집 함께 판매

87 송재훈 (사회·무역4) 사진전 「제2회개인전」이 지난17일 (금) 부터 24일 (금) 까지 용인캠퍼스어문학관 206호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해 촬영한 87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송군의 「개인사진집」 도 함께 판매 (1천원) 하고 있는데 송군은 수익금을 고아원과 양로원의 원생들을 위해 전액 쓰여질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군은 오는 5월중에 서울캠퍼스에서도 전시회를 갖을 예정이다.

용인캠퍼스 이름공모, 광범위한 호응및 분위기 조성못해 무산

본사에서는 지난해 11월초부터 애교심 고취의 일환으로 용인캠퍼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이름을 공모해, 이번호 (464호) 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학생참여저조및 전반적인 여론조성이 되지못해 무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용인캠퍼스 대자보를 통해 명칭을 공모하는 한편 3월중순부터는 설문지를 배부해 구체적인 외견수렴의 장을 확대하였으나 이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의와 적극적자세가 부족했던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장기적인 역사성과 공식성을 띨 수 있는명칭을 선정하는데는 무리가 따르므로 차후로 연기하기로 결정, 잠정적으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의 추진에서 교수및 학생회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및 학교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못한 본 담당자의 진행미숙에 대해 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름공모가 결실을 맺지는 못했으나, 캠퍼스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여 관심도를높인다는 기본취지를 이어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애교심과 주체적인 의식이 진작되고 캠퍼스에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부>

뜻을 세울때

○…개교 33성상을 맞은본교가, 사람으로 치면 입지(立志)의나이를먹은것이라 새로운뜻과학풍을 세워야할즈음.

실상 캠퍼스 이곳저곳에못다 한 일이 산적해 있는 판국에 흡산들마저 패기없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지경인데 전통과 문화는 주어지는게아니라 스스로 쟁취해나가는것인바.

양적비대와 함께 질적으로 갖춰져야할 본교 33년사를 도약의 더딤돌로 삼아 이미지 혁신을 위해 흡산 모두가열차게 매진할것을 당부.

○…이문벌에 모처럼 벌어진 투쟁전은 민주흡산의 열띤 참여가운데 예년과 다른신풍경이연출돼었는데.

3백50여 민주흡산의 가열찬「장기집권분쇄 실천대회」 투쟁을 저지하던 잡새들, 교문앞에 신방어 그물을 쳐놓고 내렸다 들었다하여 이채.

오랜 침묵을깨고 실천적모습을 보인 민주흡산들에게박수갈채를 보낸 흡산들 왈 「우리도 신무기 제작하고 외기투합하여새 투쟁양태를갖구할때」 라고 입을모아.

○…전방퇴소 흡산을 이송하던 버스가 입소시 전속력을 내더니만 퇴소시는 반대로 늦장과 꾀를 부려 용감한 모과 흡산들 단체로 실력행사 (?) 를 했다고.

1호차에 합승해있던 이들 흡산의 가속 주장에 호송담당관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허울좋은 달변이 화근이 되어, 도중하차하여 5시간 스크럼 협군을 하는 대담성을 과시하게된것. 결국은 호송차 속도를 그제서야 높였다고 하나 흡산들의 정당한 요구가 늦이 런식으로 해결돼야하는세태가 자못 한심하기만.

○…전방과목의 선택화영향학인지, 입소후 울며겨자먹기식의 별 해괴한 대우를 다 받았다는데.

사연인즉, 군당국이 『이제라도 나가려면 나가라』 는동의 발언을 서슴치않더니, 급기야 사사로운 일로 모흡산 강제퇴소까지 자행한것은 기막힌 노릇인바.

이번 사태는 전방선택화의 강점을 이용한 횡포에 다름아니라, 실상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임을 직시해야 할듯.

○…요즘실천적 학일을 이루지못한채 계속되는 사상논의에 매몰된듯한 총학생회가 대중에 외거한 민주적자세를 보이지않자, 이에대한 흡산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즈음.

전방 4·19등 시기적인계기조차 구색을 맞추지 못한 총학생회의 무책임, 무능력에 대해 흡산제위, 「총사태」 운운까지 하는 지경이다.

무엇보다 흡산속에 기반을 두는 기구인만큼 흡산의요구에 부응, 구태를 벗고 정풍운동을 일으는 헌신적 자세가 필요한 때.

구태를 벗는계기로

❶ 코오롱은 보람찬 일터로 가꾸기 위한 기업의 의지로 참여의 보람, 성취의 보람, 댓가의 보람을 실현하는 사풍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여의 보람—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은 그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마당이 폭넓게 펼쳐진 기업이다. 코오롱은 바로 인재가 꿈과 이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참여의 보람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보람있는 참여의 기회를 주는 일터, 코오롱.

코오롱은 보람찬 일터를 가꾸기 위한 기업의 의지로 참여의 보람, 성취의 보람, 댓가의 보람으로 실현되는 사풍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여의 보람이란 창의력이고 열의를 지닌 인재가 그들의 가능성과 이상을 코오롱의 일터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또는 연구분야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코오롱 구석구석의 각 분야에서 코오롱의 인재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코오롱의 미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재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코오롱은 참여의 보람과 더불어 젊음의 도전과 창의성이 댓가의 보람, 성취의 보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보람찬 일터로 가꾸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사 조 정 호

미래사회에 투자하는 코오롱

어느날, 신입사원인 나에게 우리회사가 앞으로 관련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라는 뜻밖의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입사한지 6개월 … 수습사원이라는 딱지를 막 벗어버린 햇병아리 신입사원에 불과한 나에게는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0년이나 대학선배인 부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까닭에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 신입사원을 과감하게 기용한 회사측의 배려는 일에 대한 끝없는 의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금, 성공적인 업무의 완수보다 함께 그당시 선배와 같이 참여했던 소중한 경험이 아빈 새로운 도전에도 자신감을 갖게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끝없이 도전할 수 있는 참여의 보람이 있는 직장—
사람을 통해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보람의 일터 — 바로 나의 일터 코오롱은 인재의 소중함을 막연함이 아닌 행동으로 제시해 주는 보람의 장(場)인 것입니다.

사원 김 태 화

까뮈유감(有感)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다.

점심을 푸지게 먹어댄 탓인지, 거기다 막걸리까지 걸쭉하게 한잔 걸쳐서인지 온몸이 나른해 지면서 자꾸 졸음이 밀려들었다. 좀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자꾸 무료함이 엄습해왔다. 다들 취재를 나갔는지 사무실은 텅비어 있었고 간간히 미스김의 타이핑 소리만이 한낮의 정적을 깨고 있었다.

나는 책상 위에 잔뜩 쌓여있는 원고지를 내려다 보다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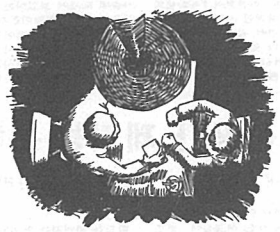
「빌어먹을 이놈의 짓거리 하구…이 화창한 봄날 오후에…」

혼자말을 중얼거리면서 의자를 슬그머니 뒤로뺐다. 창밖에서는 따사로운 볕기운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화사했고, 발걸음도 경쾌하기만했다. 찻길에는 빨강, 파랑, 초록의 작은 승용차들이 한데 뒤섞여 바삐 어디론가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자 오늘점심시간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야 이게 누구야 ×× 아이가?』

모처럼 만난 명수형은 무척이나 얼굴이 수척해 있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즐거운듯 그저 내내 얼굴에 웃음을 내보이고 만고만한 또래 형들의 축하와 시기(?)속에, 또한 여전히 실업자로 지내는 친구, 후배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비록 작기는 했지만 명수형의 카페는 한결 빛이 나 보였다.

『형 그나저나 이름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이름이?』

『네.』

『자식… 안 잊었구나 아직 이건 너 때문에 붙인 이름인데… 하하』

명수형은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거 이 ×× 정말 안되겠네. 너, 끝까지 이렇거야!』

끝내 안되겠던지 김형사는책상을 내리치면서 상스런 욕지기를 퍼부어 댔다. 그리고는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꺼내기 시작했다.

『야 그럼 이건 뭐냐?』

김형사는 주머니에서 녹색학생수첩을 하나 꺼내서는 앞으로 내밀었다. 그건 명수형의수첩이었다.

『자, 다 안다구 그래봐야소용없어』

김형사는 삼체를 좀더 내게 가까이 기울이면서 말했다.

까뮈—기진과 4월 4일

나는 속에서 피식 웃음이 솟아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찾아냈다.

『이게 뭐가 어때서요』

『이 자식이 그래도 이거 니들알호지?아니면 녀희들의 접선 장소거나, 다 알고 있으니까 순순히 불어』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끄러미 김형사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까뮈를 모르고 암호운운하다니…그러자 은근히 마음속에서 장난기가 솟구치는 것이 아닌가?

『네, 할수없죠, 다 말씀드려 야죠, 실은 말에요』

『실은 뭔데?』

김형사는 조급한듯 침을 꿀꺽이며 고개를 더 앞으로 빼내었다.

"이거 니들 암호지? 순순히 불어"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끄러미 김형사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까뮈를 모르고 암호운운하다니…은근히 마음속에서 장난기가 솟구치는게…

있었다.

모처럼 마음이 푸근해 진 때문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못본 친구, 후배, 선배들을 만나선지, 형동에도 여유가 있었다.

『축하해요 형 사장님 되신거』

『뭐?사장?원 자식하군…』

명수형은 엷게 미소를 띄우며 시선을 다른데로 돌렸다. 하지만 썩 싫은 기색은 아니었다.

개업식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조촐하면서도 흥겨움이 있었다. 카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돼지머리고기도 듬뿍 내놓았고, 막걸리도 그런대로 좋았다. 이제 사회에 나와 자리를 잡은고

『그게 벌써 5년전얘기다』

『요즈음 그런 사람없겠죠』

『글쎄…』

『야 임마 빨리안불거야?』

그러니까 그해 4월, 나는명수형의 시위사건에 연루 되어 잠시 경찰서 신세를 진 적이있었다.

『야 누이좋고, 매부 좋다고 어디야! 어디?』

명수형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김형사는'연 이틀째나 날 앉혀놓고는 명수형의 소재를 알아내려 했었다.

『네가 한 마디만 하면 다 해결돼. 어디야?』

하지만, 넌들 알 수가 있는가. 제 아무리 내가 명수형과 친하다지만, 귀신같이 숨어다니고, 도망다니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어떡해요』

나는 눈꺼풀이 절로 내려앉는 것을 억지로 참아내며 사정

『실은 여기가 저희들이 자주 가는 다방이에요』

『그렇지 어디에 있는건데?』

『저, 저…청량리에』

『이봐 김순경 빨리 수배해서 청량리 까뮈다방 좀 찾아』

김형사는 외기양양해서 크게 소리쳤었다.

『하하, 자식! 어렵게 그런 거짓말을 할 생각이 났나?』

『넌들 뭐 어떡해요. 까뮈보고 암호 아니냐는데…』

『하지만 그 때문에 네가 억수로 고생했잖아?』

『하지. 나중에 사실을 알고는 김형사 얼마나 설쳐대는지…』

『야 그나저나 까뮈,아주 이름이 좋은데 누가 지었냐?』

『거 누가 불문학도 아니랄까봐…』

옆에 서서 내내 우리얘기를 듣고 있던 수봉이형이 말하자 후배 성호가 비꼬는 투로 말을 건넸다.

『야 그러지 말고 그거 우리 앞으로 암호로 쓰자. 만약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아주 괜찮은데』

『뭐?』

나와 명수형은 동시에 서로를 쳐다 보았다. 그리고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어쨌든 좋다. 우리 다같이 까뮈 부라보 한 번하자』

『자 부라보!』

『부라보!』

꽁트

이 기 진

〈85년 불어과졸업〉

신간소개

한국의 유민시(流民詩)

—윤영천역음

이책은 일제강점기 유이민문학에 대한 연구서로서 식민지시대 민족문학의 자생적 기반을 확인하고 현대문학사를 새롭게 재조명하기 위한 문학연구서이다.

오늘의 분단된 상황에서 민족현실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단문학」을 단호히 척결하고, 한국문학의 총체적인식을 위한 「통일문학」으로의 방향설정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실천문학사펴냄 값3,500원>

나의손발을묶는다해도

—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 엮음

이책은 박종철군 고문사건을 계기로 도덕적파탄을 거듭하고 있는 공안당국과 검찰의 고문사례담을 들면서 비민주적 위정자들의 양심회복을 호소하고 있다.

식민사회의 잔재인 고문이 이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억압하는지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밝히고 있는 이책은 권양의 최후진술, 박종철군 진상보고서 등이 자세히 나열돼 있다.

<거름펴냄 값3,800원>

문예단신

왕이된 허수아비

—극단 셈프

플질문명의 이기에 의하여 인간성 상실을 초래한 현 상황속에서 태초적 정서복원을 선언하고 나선 극단「셈프」의 두번째 작품「왕이된 허수아비」가 4월20일(월) 부터 5월25일(월)까지 오후 7시30분(토·일·공휴일은 4시, 7시30분) 에 여의도 백화점 6층 셈프 예술마당에서 공연된다.

화평

도서출판 녹두펴냄 값4,500원

번역서 일변의 기존사회과학 서적에서 나타나는 막연한 일반론 추출의 형태를 탈피, 창조적 실천방안을 모색

다시 생각하는 민주주의

—녹두서평 1

최 성 준

지금 시기 가일층 심화되는 사회구조 모순속에서 우리들앞에 놓여진 민족의 자주화와 사회의 민주화라는 미완의 시대적 과제를 마주칠때 무엇보다도 올바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인 학문적·사상적 이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작금 비약적으로 활성화 되고있는 한국사회의 성격에 관한 복잡다기한 논쟁들은 이같은 요구에 비추어 볼때 고무적 현상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논쟁들이 얼마만큼 우리사회 현실속에서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덜 성숙된 단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제반 논의의 방향이 단순히 화석화된 이론의 정형을 확립하는데 그치는 관념적 귀결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현실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실천노력들과 유기적으로 결부될때 만이 그 이론의 유의미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런 의미에서 도서출판 녹두에서 출간된 사회과학전문무크지『녹두서평1』은 우리의 사회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특히 책머리에서도 언급되고있듯이 최근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한 독자들의 학문적·사상적 욕구가 광르렛 형태의 비합법 출판물을 통해 증폭됨으로 인해 사회과학 출판물이 독자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는 현실의 반성으로부터 출발, 우리 사회현실과의 치열한 대결과정을 통한「구체화된 논의」를담은 출판물을 선언하고 있어 그 신선함을 더해준다.

이하에서는 본서의 핵심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특집「민주주의 혁명과 제국주의」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반봉건의 성격을 띤 서구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과는 다른 제국주의 시대의 민주주의 혁명을 기본적인 관심 대상으로 삼고있는 이들 특집 논문들은 변혁의 과제로서 설정된 민주주의만한 어떤 내용을 지니는 것인가, 민주화의 과제가 민족해방 내지는 자주화의 과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등을 독일, 러시아, 중국, 베트남의 민주주의 혁명과정을 통해 그 구체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식민지사회에 있어서의 민주화와 자주화의 과제는 투개의 고립된 별개의 사항이 아닌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동시 극복과제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민주화는 식민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측면에서 제기되어야 하고 민족해방진영과 제국주의자 간의 싸움에서 민족해방진영이 승리하기 전에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들 논문은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것인가」 라는 원초적인 물음을 새삼 던지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사회 상층부에서 입버릇 처럼 되뇌이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구 부르조아 사회에서 일반화된 추상적이고 화려하게 치장된 부르조아 가치체계에 불과 하다고 말한다.

특정한 역사적 형태의 민주주의는 특정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다른 계급들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느냐의 계급론적 관점에서 참된 민주주의 실체를 올바로 인식할것과 나아가 구체적 상황과 결부되는 민주적 제권리 확보와 아울러서 민주주의 혁명의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고 있다.

식민지 반봉건체제하의 중국의 「신민주주의혁명」과 베트남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전술의 고찰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지민중간의 모순 (민족모순) 이 가장주요한 기본모순임을 강조한다. 또한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투는 단순한 상품과 자본의 침투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이데올로기의 사회구성체 전 심급에 걸쳐 내재화되며 따라서 계급모순= 내적모순=기본모순, 민족모순=외적모순= 주요모순의 논리가 근거없는관념의 산물임을 마르크스 사적유물론의 정식화를 통해 규명하고있다.

이상에서 간략하나마 특집기획인 「민주주의혁명과 제국주의」를 주로해서 살펴보았다. 이밖에도 시종 비평적는조로 이끌어간 서평 부분과 특히 우리의 기억에는 새롭기만한 4·3제주도 민중항쟁을 내용으로한 장편 연작서사시 「한라산」은 적새 매도의 현실적 굴레를 벗어던지고 민중적 한과 분노를감동어린 필치로 엮어내고있어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다.

『녹두서평1』을 총괄 해서 볼때 나타나는 몇가지 특징적 사실은 우선 본서가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갖고 논의를전개하려한다는점이다.

이는 기존의 한국 논쟁들이 미처 정리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데서 녹두출판사의 외욕적 기획이 아닐수 없다. 두번째는 책내용의 전반을 관통하는(피억압자의 관점에 입각한) 당파성이다. 부르조아적 편견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성점을 시종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본서의 곳곳에서 간취되는 주체적이고계획적인 실천 노력들이다. 번역서 일변의 기존 사회과학 서적에서 나타나는 막연한 일반론 추출의 형태를 탈피하여 현실속에 존재하는 가능성과 결부되는 창조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려 한다는 점이다.

끝으로 많은 현실적 제약조건속에서 『녹두서평1』을 출간한 녹두 편집진들에 격려를 보내며 본서가 기왕에 「구체화된 논의」를 선언한 마당에 본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 우리 사회현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성과물을 담은 녹두서평을 기대해 본다.

〈어문·영어4〉

문예산책

"오늘은 참여를 하마"

—「시민을 위한 민족문학교실」

혼히 우리는 문학을「글쟁이」라는 사람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문학을 감상의 영역으로만 생각케하여 문학을 현실과 유리되게 만들고 있다. 허나 문학은 문학의 바람이 되는 당대의 사회현실에 무관심할 수 없기에 현실에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이다.

지난 4월10일부터 매주 금요일 여성백인회관강당에서 열리고있는 총 24강좌의 제2회 「시민을 위한 민족문학교실」은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볼수 있다.

이번 「민족문학교실」은 유신독재시 당시의 현실참여문인들이 우리현실을 민족의 위기상황으로 규정,시국에 대한「문학인 101인선언」을 통해 발표했던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이하 자실)」가 그동안 대중들과 유리된 폐쇄적성격에서 탈피하고 보다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마련된것。74년 출범후 「자실」은 문학을 통해, 또는 문 학을 위해 싸우다 투옥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동료문학인들을 위한 권리쟁취에 참여하는 문학인들의 모임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띠어왔었다.

그러나 70, 80년대들어 권력층에 의해 호도되어진 「민족문학」에 대한 대중자체인식의필요성을 「자실」은 절감하고 단지 문인들만이 아닌 일반대중과의 연계를 위한 대단위의 몸짓을 준비해 왔던 것이다.

문학이 말의 수단에 입각한 것일때, 그 「말」의 한계안에 살고있는 민족구성원 전체가문학의 실체임은 당연하다. 따라서 「민족문학」은 곧 문학이며 민족이 역사의 운동체일때, 문학또한 거대한 운동의 한 양태라고 보여진다. 때문에 「민족문학은 민족현실의 모순과 문제점들에 대한 결연한 싸움의 의지를 내용으로 하는것입니다」라고 밝힌 고은씨의말은 현 민족문학의 위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17일, 박태순씨의 「제도교육속의 문학」과 최하림씨의 「시와 현실」의 주제로 열린 「민족문학교실」의 두번째 강좌에서 박태순씨는 「오늘은 참여를 하마…너희들은 이시대의 모순을 깨닫고 시를 만나야한다。오늘만은 너희가 나를 깨우쳐주려무나」라는 일선에서 제도교육의 한계를 통탄한 교사의 시를 낭독하면서 특히 국어교육과정에 의해 지배·명령언어에 길들여져있는 우리들자신부터 적극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지배언어로 삼풍선전문구가 있어요。일례로, 우유(=소젖) 먹고 자라야만 교양있는양, 모유는 전근대적이고 비위생적인 것처럼 주입시켜 순수한 모성애마저 짓밟고있음니다。거기다 미국의 록화아가씨는 외 우리나라에서 환대받는 것이며 텔리토니아 대추(?)가 전라도대추보다 정말 우수하다할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민족문학이 궤변이 아닌 정명(正名)으로써 위상을 정립시켜나가야 한다는 박태순씨의 말은 큰공감을 얻기도했다.

6월중순까지 문학전반에걸쳐 현역작가들이 주제강연하는 이번모임은 『첫주부터 호응이 대단하였고 참가자들의 대다수는 젊은계층이었어요。허나 현실인식이나 작가개인에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강연중 주어졌고, 작가와의 직접만남이어서인지 뭐진지했을니다.』 며 특히 이번 강좌를통하여 「자실」에서는 준회원제도를 운영할계획도 마련돼있다고 실무담당자 현준만씨는 밝혔다.

문인만이 아닌 민족전체의 문학으로 발전되어야

그러나, 작가와 만난 대중들은 주로 일방적인 연사의 강연으로 인해 경직된 분위기에 접하게됐는데, 이에 「자실」에서는 5월중순부터 이러한 점들을 보완키위해 10명단위의 소모임도 기획중이라한다.

한편, 앞으로 서달동안 진행될 「민족문학교실」은 슬한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겠지만, 단순히 민족이기에 민족어를 한다는 당위와, 강제가 아닌 「해방」으로서 우리의 「민족문학」을 재정립하는 장(場)이 될 수있으리라고 본다.

<윤>

에스에스패션 신사복 —
더 이상 품질보증이 필요할까요?

품질관리 1등급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에스에스 패션 신사복은 국내최초로 최고의 품질보증제도인 'KS'마크와 '품'자마크, Wool마크를 모두 획득했으며, '84년도에는 의류업계에서 유일하게 품질관리대상까지 수상했읍니다. 또, 에스에스패션 신사복은 공진청 품질종합평가에서 소재, 형태, 바느질등 총 25개 부분에 걸쳐 품질 우수 판정을 받았읍니다.

- 'KS'마크 : 국가에서 품질을 인정한 규격제품에 KS마크를 부착,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품'자마크 : 정부에서 공장품질관리의 우수성을 1등급, 2등급으로 지정하여 공인하는 제도. 에스에스패션은 1등급임.
- 'WOOL'마크 : 원단, 봉제품이 울마크 규격일 때 부착하는 제도.
- 'Q'마크 : 한국의류시험검사소의 품질보증제도

에스에스패션

영성로랑
로가디스
소사이어티 브랜드
버킹검